

청소년과 부모의 인간관계를 통해 본 신뢰의식: 토착심리학적 접근

김 의 철[†]
중앙대 심리학과

박 영 신
인하대 교육학과

이 연구에서는 청소년과 부모의 인간관계를 통해 본 신뢰의식을 탐구하기 위해 토착심리학적 접근을 시도하였다. 이를 위해 청소년이 부모, 교사, 친구에 대해 신뢰하는 이유와, 청소년의 부모집단이 자녀, 배우자, 교사에 대해 신뢰하는 이유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또한 청소년과 부모집단이 다양한 인간관계에서 각 사람을 신뢰하는 정도를 비교하였다. 분석대상은 총 1,737명이었으며, 청소년(중-274명, 고-305명)과 그들의 부(579명) 모(579명)로 구성되었다. 분석 결과, 청소년들이 부모를 신뢰하는 가장 대표적인 이유는 부모의 '희생'이었으며, 그 다음으로 '혈연관계'가 부각되었으며, 이외에 '존경함' '나를 믿어줌' '의지가 됨' '지도와 조언'이 포함되었다. 교사를 신뢰하는 이유로는 '학업 지도'와 '스승에 대한 무조건 신뢰'가 대표적인 이유였으며, '아껴주고 관심있음' '존경함' '상담과 인성지도' '부모와 같은 존재' '학생들을 위한 고생과 희생'이 포함되었다. 친구 신뢰의 이유로서 '의지가 됨' '친밀함' '친구에 대한 무조건 신뢰' '나를 이해함'이 지적되었는데, 정서적 지원의 중요성이 시사되었다. 또한 부모가 자녀를 신뢰하는 이유로 '성실함'과 '정직함'과 같은 도덕성의 측면이 강조되었고, '혈연관계' '자녀에 대한 기대와 대화' '순종함' '학업에 충실'이 신뢰의 이유로 나타났다. 배우자를 신뢰하는 이유로는 '성실함' '가족을 위한 헌신' '정직함' '배우자에 대한 무조건 신뢰' '대화와 상호배려'의 순서로 지적되었다. 학부모 입장에서 교사를 신뢰하는 이유로는 '교육자에 대한 무조건 신뢰' '학생 이해와 사랑' '성실함'이 중요하였다. 한편 학교수준별 성별 학업성적별 청소년집단의 부모, 친구, 교사에 대한 신뢰의 정도를 비교한 결과, 중 고등학생별로 부모에 대한 신뢰는 차이가 없었으나, 중학생이 교사를, 고등학생이 친구를 더욱 신뢰하였다. 또한 성별로는 남자가 여자보다, 학업성적별로는 상집단이 하집단보다 부모나 교사 및 친구를 더욱 신뢰하였다. 연령별 성별 학력별 부모집단의 자녀, 배우자, 교사에 대한 신뢰 정도를 비교한 결과, 의미있는 차이가 없었다. 부모와 자녀의 인간관계 신뢰 정도를 상호 비교한 결과, 아버지와 어머니의 배우자신뢰와 자녀신뢰 정도는 자녀의 부모신뢰 정도와 정적 상관이 있었으며, 어머니의 교사신뢰와 자녀의 교사신뢰 수준도 정적 관계를 보였다.

주요어 : 신뢰, 토착심리, 관계 문화, 정서교류적 지원, 도덕성, 희생, 순종, 유교철학의 영향, 부모자녀관계의 확대

[†] 교신저자 : 김의철, 서울시 동작구 흑석동 중앙대학교 심리학과, E-mail : uicholk@chol.com

일상생활을 해 나가면서 사람들이 혼자 있거나 혼자 하는 일도 있지만, 많은 경우는 여러 사람들과 어울려 지내며 관계 속에서 함께 일하게 된다. 가정의 구조를 보면 최근에 독신가정도 증가하고 있지만 대부분은 부부나 자녀들로 가족이 구성된다. 자녀들 경우에 교육을 받는 목적으로 학교에 가게 되면, 교실상황에서 친구나 선생님과의 관계 속에서 교육이 이루어진다. 성인들 경우에 직업특성에 따라 관계교류의 정도에는 차이가 있지만, 직장을 가면 상사나 동료 등 인간관계 망 속에서 작업을 하게 된다. 사회적 관계 속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믿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사람들은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계속 판단을 하고, 그에 기초하여 관계의 지속여부나 관계의 강도 수준을 결정해 나간다. 이러한 역동적인 과정이 일방적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고, 관계 구성원간에 쌍방향으로 영향을 주고 받는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본인의 의도와는 전혀 달리 상대방의 가치판단 기준과 틀에 의해 평가되기도 하고, 관계구조가 재조정되기도 한다. 이러한 상황을 일반적으로 관계 내에서의 '오해'라고 명명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본인의 의도가 상대방으로부터 제대로 '이해'받고, 위로와 격려가 되기도 한다. 객관적으로 오해였던 이해였던 간에(판단의 정확성), 그 오해나 이해의 깊이가 어느 정도였던 간에(판단의 전문성), 그리고 오해나 이해가 어떠한 결과를 초래하는 간에(판단의 영향력), 여하튼 사람들은 일상생활 속에서 끊임없이 상대방을 인식하고 평가하며, 그에 따라 상대방을 신뢰할 수 있는 수준을 계속 재조정하고, 결과적으로 관계구조를 변형시켜 나간다. 심리학자들이 '신뢰'에 대해 어떠한 정의를 내리고 있는지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어도, 사람들은 일상생활에서 매순간 타인에 대한 신뢰여부를 판단해 나가고 있다. 그렇기 때

문에 인간관계에서의 신뢰 기반에 대한 분석은, 특정 사회와 문화 속에서 실제로 현존하고 있는 인간의 심리와 행동을 이해하는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다.

한국 사람들은 어떤 경우에 다른 사람을 '믿고 의지' 하는가? 그러한 구체적인 경우들에 대한 나열이나 각 개인의 독특한 취향이 아니라, 겉으로 드러나는 다양한 경우들의 밑바탕에 존재하고 있는, 한국인들의 '인간관계에서 신뢰'와 관련된 토착적인 심리의 특성은 무엇일까? 하는 질문을 하게 된다. 주변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믿을 수 있거나 또는 믿을 수 없다고 판단할 때, 그 기저에 자리잡고 있는 인간에 대한 신뢰의 기준은 무엇이며, 이와 관련된 한국 사람들의 사회적인 표상은 어떠한가에 대한 관심으로부터 이 연구는 출발한다.

비록 모든 개인은 개성이 있고 구체적인 심리와 행동 특성의 면에서 다르지만, 한국이라는 유사한 생태조건 아래에서 공동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단일민족으로서의 정체감과, 공유된 가치의식 및 생활양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한국 사람'이라는 사회문화적 동질성을 갖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한국 사람들이 사회적 표상을 문화적으로 공유하고 있음을 전제한다. 이러한 문화적 뿌리를 갖고 있는 토착 심리가 보편적인 심리학 이론에서 오차변인으로 간주되고 있는 문제점을 인식(Kim, 1999)하고, 일반화된 이론에서 간과되고 있는 한국인의 토착심리를 규명하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이 연구를 진행하였다. 사람들의 내부에서 실제로 살아 움직이고 있는 심리들을 이론으로 정리하고 종합해 내려는 아래에서 위로의 모델구축적 방식(Bottom-up approach)의 도입을 통해, 토착민들의 문화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독특한 진실들이 새로이 조명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사실들을 밝히려는 다양한 심리학적

시도나 방법들이 과학적 심리학의 지평을 넓혀 줄 것으로 기대한다.

최근에 한국인의 토착심리를 규명하고자 하는 노력이 여러 주제를 중심으로 연구되어 왔다. 부모자녀관계(방희정, 2000) 청소년 문화(박영신, 김의철, 2004) 등 다양한 심리 행동 특성들에 대한 분석뿐만 아니라, 한국인 심리의 문화적 해석에 대한 종합적 분석도(조근호, 2003; 최상진, 2000)도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시도들에서 다루는 구체적인 연구주제는 비록 다르지만, 일반심리학의 한계를 벗어나 다양한 문화를 개인과 상호작용하는 하나의 환경 특성으로 포함하는 차원에서 접근해 보려는 시도는 공통점이 있다. 심리학이 문화적 독특성을 오차변인으로 간주하고 서양인을 중심으로 한 일반화된 법칙의 규명 및 획일적인 적용을 하는 것의 한계를 인식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인간의 심리와 행동을 선형적인 관계모형으로 단순화시키지 않고, 문화를 포함하는 상호작용모형의 틀에서 이해하려는 제안(Kim, 1999)과 토착심리학의 철학과 배경에 토대(Kim, Park, & Park, 2000)를 두고, 이 연구에서는 한국인의 인간관계 신뢰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기로 한다.

이와 같이 한국인의 신뢰에 대한 토착심리가 규명되어야 하는 이유는, 보편적 심리학의 토대가 되고 있는 서양의 문화와, 동아시아의 유교문화권에 속해 있는 한국의 문화는, 질적으로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차이의 근원에 대해 Kim(1994)은 자유주의와 유교의 측면에서 잘 비교하고 있다. 즉 자유주의는 개인주의적 덕목을 선호하고 유교는 집단주의적 덕목을 선호한다고 전제하고, 자유주의적인 전통에서는 자기의 충족을 위해 자유롭게 선택하고, 개인은 독립적이고 자율적이며, 개인의 권리가 중요하다고 설명하였다. 반면에 유교에서는 집단의 권리에 관심을 갖

고, 개인은 어진 사람이 되기 위해 개인적인 욕구를 통제하고 자기를 수양해야 하며, 개인의 역할과 의무를 다함으로써 사회적 질서가 지켜지게 된다고 보았다. 물론 Kim(1994)이 지적하고 있는 바처럼, 자유주의는 개인주의의 한 형식이고 유교는 집단주의의 한 형식일 뿐이며 동일한 것은 아니다. 집단주의에서도 유교 이외에 불교 이슬람교 도교와 같은 다른 철학적 전통이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교적 전통은 집단주의 문화의 특징과 많은 면에서 공통점을 갖는다. 즉 '집단주의 사회에서는 우리의식, 집단적인 정체감, 정서적 의존성, 집단의 단결, 의무와 복종이 강조된다'(Hofstede, 1991). 이와 같이 사회적 조화를 유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사회적 기준에 따라 행동하며 상호 협조하고 갈등을 최소화하고자 하기 때문에, 개인은 자기의 욕구를 조절하고 통제해야만 되고, 이러한 자기수양을 통해 어진사람이 되어, 나아가서 이상적 인간상인 군자가 될 수 있다.

서양과 다른 문화적인 토대를 갖고 있는 한국 사람들이, 인간관계에서 신뢰를 형성하는 심리적인 기제가 무엇인가를 이해하기 위해 이 연구는 시작되었다. 그런데 '신뢰'라는 개념에 대해 문화적으로 다른 표상을 갖고 있어 정의 자체가 다를 가능성이 시사된다. 한국어 사전(두산 동아, 2000)에서 '신뢰'의 개념은 '믿고 의지함이며, 예문으로서 '서로가 서로를 신뢰하는 마음'이라고 되어 있다. 여기에서 두 가지 특징을 시사받을 수 있다. 먼저, 한국에서 사용되는 신뢰의 일상적 개념은 단순히 상대방을 객관적으로 믿는 정도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심정적으로 의지하는 정서를 강하게 포함하는 개념일 가능성이 있다. 즉 객관적 정보에 기초한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판단으로서의 신뢰라기 보다는, 마음이 교류되어 자기의 약점까지도 솔직하게 드러내 놓을

정도로 기대어 의지하는 정서적인 차원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어떠한 기관이나 조직에 대한 신뢰라는 인식보다는, 마음과 마음이 교류되는 친밀한 인간관계에서의 신뢰라는 의미가 주를 이루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신뢰라는 단어에 포함되어 있는 '신(信)'자의 한자 뜻을 보면 '믿을 신'자로서, '사람 인(人)'자와 '말씀 언(言)'자가 결합된 글자이다. 사람이 말을 성실하게 실천함으로써 즉 말과 행동이 일치함으로써 신뢰를 얻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신(信)의 한자 어원을 보면 성실함, 정직함, 또는 속이지 않음으로 해석(정진일, 1997)된다. 성(誠)은 '정성 성'자로서 '말씀 언(言)'자와 '이룰 성(成)'자로 구성되어 있다. 명사로는 성실함, 순수한 마음, 정성, 진심, 사실의 뜻이 있고, 동사로는 참되게 하다, 삼가다, 자제하다 등의 뜻이 있다. 요컨대 성(誠)은 거짓이 없이 정성을 다함으로써 말을 이루는 것을 뜻한다고 할 수 있다(정진일, 1997). 유교철학에 의하면 성(誠)은 신(信)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¹⁾ 이것은 말(言)을

이루는 것(成)이 성(誠)한 것이고, 이렇게 성실할 때 사람(人)의 말(言)을 믿을(信) 수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신뢰의 기본이 되는 성실함에 대한 유교철학에서의 시각을 간략히 살펴보기로 하자. 중용에서는 성(誠)을 우주 만물의 생성 소멸의 원동력이고, 인간 본성으로서 당연히 행해야 할 마음이 짐으로 표현하고 있다. 자사(子思)는 중용 20편에서(정진일, 1997, p.157) "성실함은 하늘의 도이고 성실하려고 하는 것은 사람의 도이다"²⁾(중용 제 20장; 성백효, 1998)고 함으로써, 사람은 하늘의 도인 성실함을 본받아야 한다고 하였다. 나아가서 "지극히 성실한 사람만이 자기의 본성을 다 발휘할 수 있고, 자기의 성실을 다 발휘할 수 있어야 남의 성실을 발휘하게 할 수 있다. 또한 남의 성실을 발휘하게 할 수 있으면 만물의 성실을 발휘하게 할 수 있고, 만물의 성실을 다 발휘하게 할 수 있으면 천지만물을 변화시키고 육성하게 할 수 있다"³⁾(중용 제 22장; 성백효, 1998)고 보았다. 그리고 "성실하면 나타나고, 나타나면 뚜렷해지고, 뚜렷하면 밝아지고, 밝아지면 움직이고, 움직이면 변하고, 변하면 감화시키며, 오직 지극히 성실한 분이어야 능히 감화할 수 있다"⁴⁾(중용 23장; 성백효, 1998)고 하였다. 따라서 "성실함은 모든 사물의 처음이요 끝이다"⁵⁾(중용 25장; 성백효, 1998). 이러한 시각에서 볼 때 사람

1) 子曰 人而無信 不知其可也 大車無輓 小車無軌 其何以行之哉

공자께서 말씀하시었다: 사람으로서 성실함이 없으면 그 사람됨을 도무지 알 길이 없다.

큰 수레에 큰 멍에가 없고, 작은 수레에 작은 멍에가 없다면, 도대체 무엇으로 그 수레를 가게 할 것인가?

김용욱(2001, p.194)은 위 구절에서 신(信)을 '성실함'으로 번역한 것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공자는 인간의 언어생활이 그 인간의 도덕적 인격성의 잣대라는 생각을 분명하게 가지고 있었다. --- 즉 언어의 진실성이 곧 인간의 성실한 삶의 반영이라는 것이다. --- 나는 이러한 신(信)을 '성실함'으로 번역하였다. 인간이 성실하다는 것은 곧 인간이 자신의 언어를 성실하게 사용하는 것이다. 인간이 언어를 성실하게 사용한다는 것은 곧 실험할 수 있고 실천될 수 있는 말만 하는 것이다. '저기 꽃이

있다'라는 말은 실험이 있지만, '나는 귀신을 보았다'는 말은 인간에게 공유될 수 있는 실험성이 부족한 것이다."

2) 誠者 天之道也 誠之者 人之道也

3) 惟天下至誠 爲能盡其性 能盡其性 則能盡人之性 能盡人之性 則能盡物之誠 能盡物之誠 則可以贊天地之化育

4) 誠則形 形則著 著則明 明則動 動則變 變則化 唯天下至誠 爲能化

5) 誠者 物之終始

이 성실하여야 인격을 완성할 수 있고 나아가서 사람을 다스릴 수 있으며 만물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보므로, 이 세상의 모든 성취는 성실함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다고 간주한다. 여기에서 성(誠)이란 거짓이 없이 정성을 다함으로써 말을 이루는 것을 뜻하므로, 결국 신뢰(信)할 수 있다는 것과 성실(誠)한 것은 같은 의미를 내포한다.

이러한 유교와 관련된 설명 외에, 신뢰를 조망하는 다양한 시각들이 있다. Hardin(1991, 1992)은 신뢰가 궁극적으로 신뢰받는 사람의 자기 이익에 기초하고 있다는 관점을 주장하는데, 이것을 이익 추구의 접근(*Trust as encapsulated self-interest*)이라고 할 수 있다. 주로 경제학자나 합리적 선택 이론의 전통에 있는 사회학자 및 정치학자들에 의해 채택되는 접근이다. 이러한 이익 추구의 접근에 의하면, 세상에 신뢰가 존재하는 것은, 사회에서 신뢰받지 못하는 것보다 신뢰받는 것이 자기에게 더욱 이익이 되는 상황이 존재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Coleman(1990)도 신뢰대상을 신뢰함으로써 얻는 이익이 손실보다 크거나, 신뢰자가 기대한대로 신뢰대상자가 행동할 확률이 높을 때, 사람들은 신뢰하게 되고, 그 반대 경우는 신뢰하지 않게 된다고 봄으로써, Hardin(1992)과 마찬가지로 이익추구의 입장을 견지하였다.

한편 Fukuyama(1995)는 사회적 자본으로서 신뢰(*Trust as social capital*)를 제안하였는데, 신뢰가 단순히 윤리적 가치만 갖는 것이 아니라 경제 발전을 위한 조건으로서, 한 국가의 복지와 경쟁력은 그 사회의 신뢰수준에 의해 결정된다고 보았다. Fukuyama(1995)에 의하면 가족주의는 가족의 틀을 벗어난 타인에 대한 신뢰가 발전되는데 방해되기 때문에, 강력한 가족주의 전통을 가진 사회는 자발적인 집단이나 조직의 형성에 어려움이 있고, 효율적인 조직관리를 필요로 하는 경제 발전에 방해가 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가족

주의가 강하여 가족 이외의 타인에 대한 신뢰가 형성될 수 없는 사회는 신뢰도가 낮은 사회, 그 반대로 가족 이외의 타인에 대한 신뢰가 존재하는 사회는 신뢰도가 높은 사회로 간주된다. Fukuyama(1995)는 그와 같은 신뢰도가 낮은 사회로 중국, 남부 이탈리아, 프랑스 사회를 들고, 그와 반대로 신뢰도가 높은 사회의 예로 미국, 독일, 일본을 지적하였다. Putnam(1993a, 1993b)도 사회적 자본으로서 신뢰의 중요성을 지적하고, 최근 미국사회에서 신뢰가 저하되어, 그 결과 경제적인 성취가 방해될 뿐만 아니라 민주적인 정치제도의 위기를 초래할 수도 있다고 보았다.

Yamagishi(山岸俊男, 1998; 김의철, 박영신, 이상미 역, 2001)는 일본이 신뢰도가 높은 사회라는 Fukuyama(1995)의 견해에 반대하지만, 강한 유대로 맺어진 가족이 사회적 관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수록, 내집단을 벗어난 타인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린다는 점에 일치된 의견을 보인다. Fukuyama(1995)는 강한 가족집단의 유대가 외부 집단에 대한 신뢰 형성을 저해한다고 주장했으나, Yamagishi(1998)는 신뢰형성을 저해하는 사람들간의 강한 유대관계를 가족관계에만 제한할 이유가 없다고 보았다. 그렇지만 사회나 경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자발적 집단이나 조직형성이 중요하고 이를 위해 사람들이 가족이나 집단의 좁은 틀을 초월한 타인 일반에 대한 신뢰를 가질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는 Fukuyama(1995)의 생각과 일치하였다. 즉 Yamagishi(1998)는 지금까지 신뢰에 관한 연구가 관심을 가져온 관계강화(relation fortification)의 측면과 달리 관계확장(relation extension)에 대해 강조함으로써, 신뢰의 해방이론(*The emancipation theory of trust*)을 제안하였다. 또한 내집단 편애(in-group favoritism)가 강한 집단주의 사회는 안심(assurance of security)을 유발하지만 신뢰(trust)를 파괴한다고 보고, 미래의 일

본 사회가 폐쇄적 집단주의식 안심을 기반으로 하는 사회에서 개방된 기회중시형 사회로 전환하는데 성공하기 위해, 특정 집단이나 관계의 틀을 초월하는 일반적 신뢰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았다.

Fukuyama(1995)의 신뢰 기준을 적용해 본다면, 한국은 극단적으로 신뢰도가 낮은 사회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Yamagishi(1998)가 신뢰의 해방이론에서 설명하고 있는 신뢰와 안심의 개념을 한국 사회에 적용하여 본다면, 한국 사람들이 관계맺음을 해 나가는 과정에서 작용하고 있는 심리적인 메커니즘은, 연고로 연결된 가까운 인간관계에서 안심을 추구하며 상호 교류하는 폐쇄적 특성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특성은 한국 사회가 동아시아의 유교문화권에 속해 있는 것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유교윤리의 궁극적 목표는 사람들이 화목하게 조화를 이루며 사는 것에 있고, 이러한 관계지향적인 유교윤리의 특성을 두 가지로 요약하면 선한 본성의 구현과 더불어 가족주의 윤리(정진일, 1997)이다. 그러므로 특별히 신뢰하는 다양한 인간관계는 확대된 가족관계의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고, 연고중심의 내집단 편애적인 신뢰관계는 가족주의의 부정적 측면이 조망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최근에 와서 한국 사람들의 신뢰의식을 규명하려는 노력들이 있어왔다. 최상진, 김의철과 김기범(2003)은 신뢰의 개념정의에 대한 불일치가 크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신뢰라는 말이 일상생활에서 무엇을 뜻하며 어떤 기능을 하는가를 문화심리적 차원에서 분석하는 일이 필요함을 지적하였다. 이러한 시각에서 한국문화에서의 신뢰가 서양과는 다르다는 사실을 지적하였다. 즉 한국에서 신뢰는 "가족 아주 가까운 친구 관계, 함께 운명을 같이 하는 집단과 같은 특수한 밀착 관계에 있는 사람들 사이에 서로 믿고 편하게

의지할 수 있는 마음의 연대와 일체감을 뜻하는 것으로 사용된다"(p.4)는 것이다. 그러나 서양의 신뢰 개념은 "친밀 인간관계에서부터 일반적 대인관계나 사회 공적 관계에 이르기까지 폭넓게 적용될 수 있는 개념이란 점에서 한국인의 신뢰 개념과는 구분된다"(p.4)고 보았다. 뿐만 아니라 신뢰가 형성되는 과정에서도 문화 차이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즉 "서양의 경우는 상대의 행동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와 검증을 통해 신뢰여부를 판단하는 절차를 밟고, 이러한 신뢰의 바탕 위에서 친밀한 인간관계가 발전한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를 보면 친밀한 인간관계가 일단 형성된 후에 관여된 사람들간에 신뢰관계가 이루어진다. 상대에 대해 특별한 배려와 자비를 베풀음으로써, 우선 한국적 특수-친밀 인간관계(우리성정관계)를 구성함으로써 신뢰는 자동적으로 수반되는 것으로 믿는다(최상진, 2000). 즉 한국인들은 행위에 대한 검증없이 관계를 통해 신뢰를 가정한다"(p.5)는 사실이다. 최상진, 김의철과 김기범(2003)은 이러한 일련의 설명을 토대로 한국인의 특수-친밀 인간관계에서 작동하는 신뢰의 개념화를 구성적으로 시도하였다.

한편 김명언과 이영석(2000)은 기업조직에서 부하직원이 상사에 대해 갖는 신뢰와 불신의 기반을 구체적인 사례분석을 통해 탐색하였다. 연구결과, 13개의 신뢰 기반(직장생활에서의 배려, 육성적 배려, 개인생활 배려, 격 없음, 성실성, 권한위임, 직무수행능력, 유대감 조성력, 의견존중, 방패막이, 책임감, 자기희생적 솔선수범, 소신력)과 12개의 불신 기반(독선, 무책임, 아부, 언행불일치, 권위주의, 소신부족, 이기주의, 편견, 공사불분명, 감정 자제력 부족, 간섭, 타인협담)을 추출하였다. 김명언과 이영석(2000)은 13개의 신뢰 기반을 통해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측면에서 논의를 시도하였다. 첫째, 상사의 부하에 대

한 심정적 배려(응답의 약 60%)가 상사에 대한 부하의 신뢰기반이 된다는 것이었다. 예컨대 서양에서는 개인 사생활에 대한 간여로 불신을 낳을 수도 있는 데, 한국에서는 가족생활의 경조사를 가족의 일원처럼 함께 참여하는 상사의 심정적 배려가 부하에게 신뢰감을 형성하게 한다는 것이다. 즉 최상진(2000)의 심정교환론과 일치하여, 배려적 심정과 신뢰 심정이 교환된다고 보았다. 상사의 이러한 배려적 신뢰기반으로 미루어, 한국의 직원들은 자신의 상사로부터 부모나 스승의 역할을 기대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둘째로 한국적 신뢰의 기반은, 대상자의 개인적인 특성보다는 신뢰자와 신뢰대상자간의 관계에 보다 강하게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는 점이다. 셋째로, 부하직원을 능력자로 육성해 주고, 직장 및 가정 생활에 대해서도 배려해 주고, 희생적 솔선수범을 보이는 상사를 신뢰한다는 연구결과에 기초하여, 한국의 기업문화는 유교문화권의 기업에서 주종을 이루는 씨족문화(Cameron & Quinn, 1997)에 비유될 수 있다고 보았다. 넷째로, 직장 안팎의 생활을 배려해 줌, 대내외적으로 보호해 줌, 형제처럼 아껴 줌, 가족같이 지내줌, 화목한 공동체 풍토를 조성함, 허물없이 대해 줌과 같이, 가족공동체에서 발견되는 신뢰기반이 직장의 상하간 관계에서도 나타났다는 점이다.

김의철과 박영신(2003)은 한국의 기업문화에 대한 분석을 통해, 한국 사람의 신뢰와 리더십에 대한 토착심리를 분석한 바 있다. 결론적으로 유교문화권의 동아시아에 속하는 한국 사람들과 기독교 문화권의 서양 사람들은 신뢰와 리더십을 판단하는 기준에서 차이가 있음을, 기업문화의 차이를 통해 확인한 바 있다.

선행연구에서의 이론적 논의(김의철, 2000; 김의철, 박영신, 2003; 최상진, 김의철, 김기범, 2003; Kim & Park, 2000)와 경험과학적 자료(김명

언, 이영석, 2000)에 토대하여 볼 때, 관계적인 유교문화에 토대하고 있는 한국 사람들의 인간관계에서 신뢰 형성과정은 개인적이고 합리적인 문화에 토대하고 있는 서양 사람들의 신뢰의식은 질적으로 다른 토착적인 심리가 작용하고 있을 가능성이 시사된다. 즉 한국인의 토착적인 신뢰의식의 저변에 관계중심적이고 정서지향적인 경향을 예측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 그러한지는 누적된 경험과학적인 자료에 기초한 검증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 여기에 이 연구의 필요성이 있다. 김명언과 이영석(2000)의 연구에서 실제적인 사례분석이 시도되었으나 기업조직에서의 인간관계를 분석한 결과이므로, 기업과 다른 가정이나 학교에서의 인간관계에서는 과연 어떤 결과들이 나오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요구된다. 기업과 가정이나 학교는 다른 상황이므로 구체적인 점에서 차이가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계문화의 맥락과 관련된 특성들은 공통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즉 한국 사람들은 능력과 같은 개인 자체의 특성보다는 관계에서의 역할과 관련된 도덕성에 토대하여 신뢰를 형성하고, 합리성보다는 심정이해에 토대한 정서교류 지원적인 신뢰를 추구하며, 가족관계에서 추구되는 가치가 다양한 인간관계에서의 신뢰구축과정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시사된다.

이 연구에서는 한국 사회에서 사람들이 어떠한 이유로 상대방을 신뢰하는지를 질문하고 그에 대한 응답을 분석함으로써, 한국인의 인간관계에서 신뢰의 기반을 파악하고자 시도하였다. 신뢰에 대한 학문적 정의나 이론적 틀도 검토할 필요가 있지만, 과연 한국 사람들의 삶의 현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신뢰의식은 실제로 어떠한 사회적 표상들로 구성되어 있는지에 대해 이 연구의 주된 관심이 있다. 이러한 연구는 개인의 심리적 역동을 이해하는 면에서만 아니라 한국

사회를 이해하는 연구 자료로 중요하다. 윤영진, 김의철과 박영신(2002)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한국 사회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은 '부정부패/비리'로 드러났고, '연고주의'도 지적된바 있다. 또한 김묘성, 김의철과 박영신(2002)이 한국 정치 지도자들의 문제점을 분석한 결과도, 응답자의 과반수가 '부정부패'를 지적하였으며, '부정직함' '파벌주의'가 포함되었다. 이와 같이 사회 전반에 팽배해 있는 부정부패 현상에 대한 인식과 관련된 불신은, 정치 분야에서만이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폭넓게 나타나고 있다. 부정부패와 불신풜조가 만연되어 있는 것으로 지적되는 한국 사회에서, 한국 사람들은 무엇을 신뢰의 기준으로 여기며, 신뢰의식의 근저에 작용하고 있는 기제는 무엇인지를 확인해 보고자 한다. 최근에 이러한 시각에서 접근하려는 시도(Park, Kim, & Lee, 2004)가 있었으며, Kim, Helgesen과 Ahn(2002)은 한국과 덴마크의 정치문화에 대한 비교의 맥락에서 신뢰의 문제를 다룬 바 있다.

이 연구에서는 한국 사람들의 인간관계에서 신뢰와 관련된 토착심리 규명을 시도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청소년이 그들에게 의미있는 사람인 부모 친구 교사에 대해 신뢰하는 이유와, 청소년의 부모집단이 그들에게 의미있는 사람인 자녀 배우자 교사에 대해 신뢰하는 이유를 분석하고자 한다. 물론 한국 사람들의 인간관계에서의 신뢰라는 주제는, 청소년과 부모집단 만이 아

니라 직장에서의 상사와 부하관계 또는 동료관계라든가, 정치 대표자와 국민들의 관계 등 여러 측면에서 접근해야 하나, 이 연구에서는 우선 청소년과 부모집단의 인간관계를 중심으로 신뢰의 토착심리를 규명하고, 후속 연구에서 기타 다양한 인간관계에서의 신뢰의식을 계속 분석할 계획이다. 누적된 연구 결과들의 종합을 통해 한국인의 토착적인 신뢰의식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며, 이 연구는 그러한 맥락에 포함되어 있는 기초연구로 시작된 것이라 할 수 있다.

방 법

분석대상

이 연구를 위한 최종 분석대상은 표 1에 제시되어 있는 바처럼, 1,737명이었다. 남녀 중학교 2학년 학생 274명과 인문고 남녀 고등학교 2학년 학생 305명이 청소년집단으로 분석되었다. 그리고 그들의 아버지 579명과 어머니 579명이 성인집단으로 분석에 함께 포함되었다.

청소년의 평균연령은 15.68세(중 13.85세, 고 17.31세) 였으며, 연령분포는 12세에서 19세였다. 본인이 지각한 평균성적은 비교적 다양하게 분포하였다 (상 13.6%, 중상 37.7%, 중 27.1%, 중하 17.4%, 하 3.3%). 성인집단의 전체 연령 평균은

표 1. 분석대상

	중학생	고등학생	부	모	계
남	133	161	579	-	873
녀	137	144	-	579	860
무응답	4	-	-	-	4
계	274	305	579	579	1,737

43.67세였으며(부 44.98세, 모 42.35세), 30세에서 57세까지 분포하였는데, 30대가 12.3%, 40대가 77.2%, 50대가 6.3%였다(무응답 4.2%). 분석대상 성인집단은 학력수준(초등 졸 1.8%, 중졸 7.7%, 고졸 53.5%, 대졸 29.7%, 대학원졸 5.7%, 무응답 1.6%)과 경제생활정도(상 1.2%, 중상 21.8%, 중 55.9%, 중하 16.4%, 하 3.3%, 무응답 1.4%) 면에서 비교적 정상분포를 이루었다. 분석대상 성인의 직업은, 직업없음(전업주부 포함) 23.1%, 단순직 13.8%, 기술직 19.8%, 관리직 19.1%, 전문직 20.2%로서(무응답 4.0%), 다양한 직업이 비슷한 비율로 포함되었다.

측정도구

연구자에 의해 제작된 신뢰의식 질문지가 사용되었다. 청소년용 질문지(연령, 학교수준, 성별, 학업성적)와 성인용 질문지(연령, 학력, 경제수준)에 각각의 배경정보에 해당하는 문항들이 함께 포함되었다. 청소년용 질문지에서는 청소년에게 의미있는 인간관계의 대상을 부, 모, 친구, 교사로 설정하고, 이들 각각에 대해 응답자가 신뢰하는 정도를 5점 척도(1 매우 불신, 2 약간 불신, 3 중간, 4 약간 신뢰, 5 매우 신뢰) 상에 표시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각 사람에 대해 신뢰의 가장 대표적인 이유를 한 가지씩 자유반응형식으로 기록하도록 하였다. (문항 예: 1. 어머니를 어느 정도 신뢰하십니까? 신뢰하는 정도를 () 안에 그 번호를 기입해 주십시오. 어머니를 신뢰하는 이유에 대해 써 주십시오.)

성인은 청소년보다 인간관계의 유형과 폭이 훨씬 다양하지만, 청소년 자녀를 둔 성인이 이 연구의 분석대상이므로, 청소년 자녀의 결과와도 비교할 수 있도록 의미있는 인간관계의 대상을 자녀, 배우자, 교사로 설정하였다. 따라서 성인용

질문지에서는 자녀, 배우자, 교사에 대해 신뢰하는 정도를 5점 척도 상에 표시하도록 하고, 각각의 대상에 대한 신뢰의 이유를 청소년용에서와 마찬가지로 자유반응형식으로 기록하도록 하였다. 단, 교사에 대한 신뢰는 어머니용 질문지에만 포함되었다.

실시방법 및 분석절차

질문지는 2001년 12월부터 2002년 4월까지 5개월 동안 수집되었다. 전체 1,737명의 자료를 모으는 과정에서 청소년용 질문지의 경우는 수업시간에 실시하여 수집이 용이하였으나, 각 청소년의 아버지와 어머니의 자료를 모두 짝을 이루도록 모으는 과정에서 많은 노력과 시간이 소요되었다.

신뢰의 이유와 관련하여 수집된 질적 응답 자료는 자유반응 내용 그대로를 입력하였다. 그리고 각 질문에 대해 유사한 반응들을 정리하고 그러한 반응들을 대표하는 개념들로 유목화하였다. 유목화된 개념들을 토대로 만든 변인구성표(coding scheme)가 자료 입력을 위한 틀이 되었으며, 응답자의 모든 질적 반응들은 이러한 개념들을 기초로 숫자로 변환되어, 양적 자료로 변환되어 재입력되었다. 유사한 반응 정리, 유목화, 변인구성표의 작성과정에서, 이 분야의 연구에 훈련을 받은 2명의 대학원생이 모든 기초 작업을 하고, 연구자가 수정하였다. 이와 같이 1차 수정된 결과는, 10명으로 구성된 대학원생 집단에서 집단 토의과정을 통해 철저히 재검토하고, 이에 기초하여 2차 수정을 하였다. 2차 수정된 결과에 대해, 이 분야의 전문가가 내용타당도를 재확인하였다. 양화된 질적 자료는 SPSS win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빈도분석하였다. 신뢰의 정도에 대한 양적인 자료 및 배경정보를 숫자 상태로 그대로 입

력하여 변량분석과 상관관계를 구하는 자료로 활용하였다.

연구결과

청소년의 부, 모, 친구, 교사에 대한 신뢰의 이유

청소년에게 의미있는 대표적인 인간관계라고 할 수 있는 부모와 친구 및 교사에 대해 신뢰하는 이유를 질적으로 분석한 결과가 표 2에서 표 5에 제시되어 있다. 표 2에서 아버지를 신뢰하는 이유를 보면, 전체적으로 '아버지의 희생'(30.2%)이라는 반응이 10명 중에서 3명 정도로 가장 많이 지적되었다. 아버지의 희생이라는 개념은 주로 낳아서 길러주고, 가족과 나를 위해 일하시고, 나를 사랑해 주신다는 그러한 의미들과 관련되어 있었다. 두 번째로는 '혈연관계'(19.5%)를 지적한 사람들이 10명 중에서 2명 정도로 많았다. 즉 피로 맺어진 아버지이고 가족이기 때문에 무조건 믿는 것이며, 어떤 이유도 필요없다는 반응이었다. 이 외에 '의지가 됨' '존경함' '나를 믿어 줌' '지도와 조언'이 모두 10% 이상의 반응을 보였으며, 아버지를 신뢰하는 이유로 부각되었다.

표 2에서 학교수준별 분석 결과를 보면, 중학생이든 고등학생이든 '아버지의 희생'을 가장 많이 지적한 점에서는 공통적이었다. 그러나 중학생은 두 번째로 '혈연관계'(23.4%)를 많이 지적한 반면, 고등학생은 '존경함'(16.3%)을 지적한 경우가 '혈연관계'(15.9%)보다 약간 더 많은 차이가 있었다.

성별로 분석한 결과는, 남녀 모두 '아버지의 희생'을 가장 많이 지적하고 그 다음으로 '혈연관계'에 대한 반응이 두 번째로 나타난 점에서 일치하였다. 그러나 남학생의 경우에 그 다음으

로 '존경함'(15.4%) '의지가 됨'(11.5%)의 순서로 응답한 반면에, 여학생은 이와 반대 순서로 '의지가 됨'(20.6%) '존경함'(10.3%)으로 나타났다. 즉 여학생들이 남학생보다는 아버지에 대해 의지의 대상으로, 남학생들은 여학생보다 더욱 존경의 대상으로 인식할 때 신뢰감이 증감되고 있는 약간의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학업성적별로 볼 때, 상(31.6%) 중(28.9%) 하(26.4%) 집단 모두 '아버지의 희생'을 가장 많이 지적하는 점에서 공통점을 보였으나, 상대적인 반응율은 상집단이 가장 높았다. 그러나 상집단과 중집단은 '혈연관계'를 두 번째로 많이 지적한 반면에, 하집단은 '의지가 됨'(22.0%)을 두 번째로 지적하고 '혈연관계'(20.9%)를 세 번째로 지적한 점에서 약간의 차이를 보였다. 학업성적이 낮은 자녀일수록 아버지를 정서적으로 의지할 수 있을 때 신뢰하는 마음이 더 많이 생기는 경향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학업성적 상집단이나 하집단에 비해 중집단(28.1%)은, '혈연관계'(28.1%)에 대한 반응이 '아버지의 희생'(28.9%)에 대한 반응과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현저하게 나타났다는 차이가 있었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청소년 자녀들이 아버지를 신뢰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아버지가 가족을 위해 희생적으로 고생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생각에 근거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그러한 생각은 중학생이든 고등학생이든, 딸이든 아들이든,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일관되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아버지의 희생 다음으로는 혈연으로 맺어진 아버지이니까 어떠한 이유도 필요없이 무조건 믿는다는 반응이 많았다. 고등학생은 중학생보다 아버지가 모범이 되고 성실 정직하여 '존경'할 수 있는지의 여부가 더욱 중요하게 작용하였다. 학업성적 수준별로는 상 중 하집단 모두 아버지의 희생을 신뢰의 가

표 2. 아버지를 신뢰하는 이유

	전체	학교수준별		성별		학업성적별		
		중학생	고등학생	남	여	상집단	중집단	하집단
1. 아버지의 희생	147 (30.2)	73 (31.1)	74 (29.4)	85 (32.7)	60 (26.9)	83 (31.6)	37 (28.9)	24 (26.4)
① 낳아서 길러주심	39 (8.0)	25 (10.6)	14 (5.6)	29 (11.2)	8 (3.6)	20 (7.6)	9 (7.0)	9 (9.9)
② 가족과 나를 위해 일하심	32 (6.6)	16 (6.8)	16 (6.3)	19 (7.3)	13 (5.8)	19 (7.2)	9 (7.0)	4 (4.4)
③ 나를 사랑해 줌	31 (6.4)	13 (5.5)	18 (7.1)	13 (5.0)	18 (8.1)	17 (6.5)	10 (7.8)	3 (3.3)
④ 가족과 나를 위해 희생함	16 (3.3)	6 (2.6)	10 (4.0)	6 (2.3)	10 (4.5)	14 (5.3)	2 (1.6)	-
⑤ 나를 보살펴 줌	16 (3.3)	9 (3.8)	7 (2.8)	11 (4.2)	5 (2.2)	8 (3.0)	5 (3.9)	2 (2.2)
⑥ 가족과 나를 위해 고생함	13 (2.7)	4 (1.7)	9 (3.6)	7 (2.7)	6 (2.7)	5 (1.9)	2 (1.6)	6 (6.6)
2. 혈연관계	95 (19.5)	55 (23.4)	40 (15.9)	41 (15.8)	54 (24.2)	40 (15.2)	36 (28.1)	19 (20.9)
① 나의 아버지므로	31 (6.4)	20 (8.5)	11 (4.4)	10 (3.8)	21 (9.4)	8 (3.0)	14 (10.9)	9 (9.9)
② 가족이므로	26 (5.3)	15 (6.4)	11 (4.4)	14 (5.4)	12 (5.4)	13 (4.9)	10 (7.8)	3 (3.3)
③ 무조건 믿음	26 (5.3)	13 (5.5)	13 (5.2)	11 (4.2)	15 (6.7)	12 (4.6)	10 (7.8)	4 (4.4)
④ 나의 부모이므로	12 (2.5)	7 (3.0)	5 (2.0)	6 (2.3)	6 (2.7)	7 (2.7)	2 (1.6)	3 (3.3)
3. 의지가 됨	78 (16.0)	40 (17.0)	38 (15.1)	30 (11.5)	46 (20.6)	39 (14.8)	18 (14.1)	20 (22.0)
① 의지가 됨	54 (11.1)	28 (11.9)	26 (10.3)	22 (8.5)	30 (13.5)	26 (9.9)	13 (10.2)	14 (15.4)
② 편안하고 따뜻함	24 (4.9)	12 (5.1)	12 (4.8)	8 (3.1)	16 (7.2)	13 (4.9)	5 (3.9)	6 (6.6)
4. 존경함	63 (12.9)	22 (9.4)	41 (16.3)	40 (15.4)	23 (10.3)	40 (15.2)	15 (11.7)	7 (7.7)
① 모범이 됨	15 (3.1)	1 (0.4)	14 (5.6)	9 (3.5)	6 (2.7)	12 (4.6)	2 (1.6)	-
② 정직함	13 (2.7)	8 (3.4)	5 (2.0)	7 (2.7)	6 (2.7)	6 (2.3)	5 (3.9)	2 (2.2)
③ 약속을 지킴	11 (2.3)	8 (3.4)	3 (1.2)	7 (2.7)	4 (1.8)	8 (3.0)	3 (2.3)	-
④ 올바른	9 (1.8)	1 (0.4)	8 (3.2)	5 (1.9)	4 (1.8)	7 (2.7)	2 (1.6)	-
⑤ 성실함	8 (1.6)	-	8 (3.2)	5 (1.9)	3 (1.3)	5 (1.9)	2 (1.6)	1 (1.1)
⑥ 존경함	7 (1.4)	4 (1.7)	3 (1.2)	7 (2.7)	-	2 (0.8)	1 (0.8)	4 (4.4)
5. 나를 믿어줌	55 (11.3)	22 (9.4)	33 (13.1)	31 (11.9)	24 (10.8)	31 (11.8)	10 (7.8)	14 (15.4)
① 나를 믿어 줌	41 (8.4)	19 (8.1)	22 (8.7)	23 (8.8)	18 (8.1)	24 (9.1)	6 (4.7)	11 (12.1)
② 나를 이해해줌	14 (2.9)	3 (1.3)	11 (4.4)	8 (3.1)	6 (2.7)	7 (2.7)	4 (3.1)	3 (3.3)
6. 지도와 조언	49 (10.1)	23 (9.8)	26 (10.3)	33 (12.7)	16 (7.2)	30 (11.4)	12 (9.4)	7 (7.7)
① 조언	17 (3.5)	6 (2.6)	11 (4.4)	13 (5.0)	4 (1.8)	9 (3.4)	5 (3.9)	3 (3.3)
② 바른길로 이끌어 주심	14 (2.9)	8 (3.4)	6 (2.4)	12 (4.6)	2 (0.9)	12 (4.6)	1 (0.8)	1 (1.1)
③ 대화	14 (2.9)	8 (3.4)	6 (2.4)	5 (1.9)	9 (4.0)	7 (2.7)	5 (3.9)	2 (2.2)
④ 나에게 도움이 됨	4 (0.8)	1 (0.4)	3 (1.2)	3 (1.2)	1 (0.4)	2 (0.8)	1 (0.8)	1 (1.1)
계	487 (100.0)	235 (100.0)	252 (100.0)	260 (100.0)	223 (100.0)	263 (100.0)	128 (100.0)	91 (100.0)

표 3. 어머니를 신뢰하는 이유

	전체	학교수준별		성별		학업성적별		
		중학생	고등학생	남	여	상집단	중집단	하집단
1. 어머니의 희생	168 (31.3)	78 (31.1)	90 (31.6)	111 (40.4)	55 (21.4)	96 (34.4)	33 (23.1)	38 (34.9)
① 낳아서 길러주심	75 (14.0)	47 (18.7)	28 (9.8)	49 (17.8)	24 (9.3)	37 (13.3)	19 (13.3)	18 (16.5)
② 나를 보살펴 줌	35 (6.5)	17 (6.8)	18 (6.3)	27 (9.8)	8 (3.1)	16 (5.7)	8 (5.6)	11 (10.1)
③ 가족과 나를 위해 희생함	29 (5.4)	7 (2.8)	22 (7.7)	21 (7.6)	8 (3.1)	21 (7.5)	3 (2.1)	5 (4.6)
④ 나를 사랑해 줌	18 (3.4)	6 (2.4)	12 (4.2)	7 (2.5)	11 (4.3)	13 (4.7)	2 (1.4)	3 (2.8)
⑤ 가족과 나를 위해 고생함	11 (2.1)	1 (.4)	10 (3.5)	7 (2.5)	4 (1.6)	9 (3.2)	1 (.7)	1 (.9)
2. 혈연관계	111 (20.7)	66 (26.3)	45 (15.8)	37 (13.5)	74 (28.8)	43 (15.4)	37 (25.9)	31 (28.4)
① 나의 어머니므로	40 (7.5)	26 (10.4)	14 (4.9)	8 (2.9)	32 (12.5)	13 (4.7)	12 (8.4)	15 (13.8)
② 무조건 믿음	34 (6.3)	16 (6.4)	18 (6.3)	14 (5.1)	20 (7.8)	14 (5.0)	11 (7.7)	9 (8.3)
③ 가족이므로	28 (5.2)	16 (6.4)	12 (4.2)	12 (4.4)	16 (6.2)	14 (5.0)	10 (7.0)	4 (3.7)
④ 나의 부모이므로	9 (1.7)	8 (3.2)	1 (.4)	3 (1.1)	6 (2.3)	2 (.7)	4 (2.8)	3 (2.8)
3. 존경함	78 (14.6)	34 (13.4)	44 (15.4)	37 (13.5)	41 (16.0)	42 (15.1)	22 (15.4)	12 (11.0)
① 모범이 됨	21 (3.9)	9 (3.6)	12 (4.2)	10 (3.6)	11 (4.3)	8 (2.9)	7 (4.9)	5 (4.6)
② 올바른	20 (3.7)	7 (2.8)	13 (4.6)	9 (3.3)	11 (4.3)	12 (4.3)	4 (2.8)	4 (3.7)
③ 정직함	18 (3.4)	9 (3.6)	9 (3.2)	7 (2.5)	11 (4.3)	9 (3.2)	7 (4.9)	1 (.9)
④ 약속을 지킴	13 (2.4)	8 (3.2)	5 (1.8)	9 (3.3)	4 (1.6)	9 (3.2)	3 (2.1)	1 (.9)
⑤ 성실함	6 (1.1)	1 (.4)	5 (1.8)	2 (.7)	4 (1.6)	4 (1.4)	1 (.7)	1 (.9)
4. 나를 믿어 줌	70 (13.1)	27 (10.8)	43 (15.1)	37 (13.5)	32 (12.5)	39 (14.0)	19 (13.3)	11 (10.1)
① 나를 믿어 줌	52 (9.7)	21 (8.4)	31 (10.9)	27 (9.8)	24 (9.3)	28 (10.0)	14 (9.8)	9 (8.3)
② 나를 이해해 줌	18 (3.4)	6 (2.4)	12 (4.2)	10 (3.6)	8 (3.1)	11 (3.9)	5 (3.5)	2 (1.8)
5. 의지가 됨	57 (10.6)	31 (12.4)	26 (9.1)	23 (8.4)	33 (12.8)	30 (10.8)	18 (12.6)	9 (8.3)
① 의지가 됨	31 (5.8)	17 (6.8)	14 (4.9)	10 (3.6)	20 (7.8)	15 (5.4)	12 (8.4)	4 (3.7)
② 편안하고 따뜻함	26 (4.9)	14 (5.6)	12 (4.2)	13 (4.7)	13 (5.1)	15 (5.4)	6 (4.2)	5 (4.6)
6. 지도와 조언	51 (9.5)	15 (6.0)	36 (12.6)	29 (10.5)	22 (8.6)	29 (10.4)	13 (9.1)	8 (7.3)
① 대화	22 (4.1)	5 (2.0)	17 (6.0)	12 (4.4)	10 (3.9)	10 (3.6)	6 (4.2)	6 (5.5)
② 조언	15 (2.8)	6 (2.4)	9 (3.2)	7 (2.5)	8 (3.1)	9 (3.2)	5 (3.5)	1 (.9)
③ 나에게 도움어 됨	7 (1.3)	-	7 (2.5)	5 (1.8)	2 (.8)	4 (1.4)	1 (.7)	1 (.9)
④ 바른 길로 이끌어 주심	7 (1.3)	4 (1.6)	3 (1.1)	5 (1.8)	2 (.8)	6 (2.2)	1 (.7)	-
7. 기타	1 (.2)	-	1 (.4)	1 (.4)	-	-	1 (.7)	-
계	536 (100.0)	251 (100.0)	285 (100.0)	275 (100.0)	257 (100.0)	279 (100.0)	143 (100.0)	109 (100.0)

장 중요한 이유로 생각하는 점에서 일치하였으나, 중집단 경우는 아버지의 희생에 못지않게 혈연관계를 중요하게 인식하는 차이가 있었다.

표 3은 어머니를 신뢰하는 이유를 분석한 결과이다. 전체적인 반응을 보면, 아버지에 대한 반응과 마찬가지로 '어머니의 희생'(31.3%)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30% 이상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혈연관계'(20.7%)라는 반응이 10명 중 2명 정도였다. 이외에 '존경함' '나를 믿어줌' 의지가 됨' '지도와 조언'이 모두 10% 내외였다. 세 번째 유목의 순서를 보면, 어머니보다 아버지

에 대해 의지가 되어 신뢰한다는 반응이 약간 더 많았으나, 전반적으로 아버지나 어머니를 신뢰하는 이유들이 일치하였다. 가장 대표적인 신뢰의 이유로서 '어머니의 희생'은 아버지의 희생에서와 마찬가지로, '남아서 길러주심' '나를 보살펴 줌' '가족과 나를 위해 희생함과 같은 의미들로 구성되었다. 그리고 '혈연관계'란 '나의 어머니므로' '무조건 믿는다'는, 관계 자체에 대해 절대적 의미를 부여하는 반응들을 포함하였다.

학교수준별로 볼 때 중학생(31.1%)과 고등학생

표 4. 친구를 신뢰하는 이유

	전체	학교수준별		성별		학업성적별		
		중학생	고등학생	남	여	상집단	중집단	하집단
1. 의지가 됨	157 (32.4)	67 (30.6)	90 (33.8)	80 (32.3)	77 (32.9)	83 (33.1)	38 (29.2)	36 (36.0)
①의지가 됨	72 (14.8)	38 (17.4)	34 (12.8)	39 (15.7)	33 (14.1)	40 (15.9)	16 (12.3)	16 (16.0)
②솔직한 대화	39 (8.0)	13 (5.9)	26 (9.8)	21 (8.5)	18 (7.7)	18 (7.2)	11 (8.5)	10 (10.0)
③고민상담	24 (4.9)	8 (3.7)	16 (6.0)	8 (3.2)	16 (6.8)	16 (6.4)	5 (3.8)	3 (3.0)
④믿음직함	22 (4.5)	8 (3.7)	14 (5.3)	12 (4.8)	10 (4.3)	9 (3.6)	6 (4.6)	7 (7.0)
2. 친밀함	110 (22.7)	67 (30.6)	43 (16.2)	68 (27.4)	40 (17.1)	65 (25.9)	21 (16.2)	24 (24.0)
①오랫동안 사귀	51 (10.5)	23 (10.5)	28 (10.5)	35 (14.1)	16 (6.8)	38 (15.1)	6 (4.6)	7 (7.0)
②친함	39 (8.0)	32 (14.6)	7 (2.6)	24 (9.7)	13 (5.6)	17 (6.8)	10 (7.7)	12 (12.0)
③편함	11 (2.3)	8 (3.7)	3 (1.1)	2 (.8)	9 (3.8)	6 (2.4)	3 (2.3)	2 (2.0)
④소중함	9 (1.9)	4 (1.8)	5 (1.9)	7 (2.8)	2 (.9)	4 (1.6)	2 (1.5)	3 (3.0)
3. 친구에 대한 무조건 신뢰	102 (21.0)	45 (20.5)	57 (21.4)	52 (21.0)	50 (21.4)	47 (18.7)	36 (27.7)	18 (18.0)
①당연히 믿음	76 (15.7)	31 (14.2)	45 (16.9)	40 (16.1)	36 (15.4)	38 (15.1)	24 (18.5)	13 (13.0)
②친구이므로	26 (5.4)	14 (6.4)	12 (4.5)	12 (4.8)	14 (6.0)	9 (3.6)	12 (9.2)	5 (5.0)
4. 나를 이해함	98 (20.2)	34 (15.5)	64 (24.1)	39 (15.7)	58 (24.8)	46 (18.3)	30 (23.1)	19 (19.0)
①같은 또래로서의 공감	50 (10.3)	17 (7.8)	33 (12.4)	21 (8.5)	28 (12.0)	27 (10.8)	13 (10.0)	8 (8.0)
②나를 이해해줌	35 (7.2)	12 (5.5)	23 (8.6)	15 (6.0)	20 (8.5)	12 (4.8)	13 (10.0)	9 (9.0)
③나를 믿어줌	13 (2.7)	5 (2.3)	8 (3.0)	3 (1.2)	10 (4.3)	7 (2.8)	4 (3.1)	2 (2.0)
5. 기타	18 (3.7)	6 (2.7)	12 (4.5)	9 (3.6)	9 (3.8)	10 (4.0)	5 (3.8)	3 (3.0)
계	485 (100.0)	219 (100.0)	266 (100.0)	248 (100.0)	234 (100.0)	251 (100.0)	130 (100.0)	100 (100.0)

(31.6%) 모두, '어머니의 희생'을 신뢰의 가장 큰 이유로 지적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성별로는 차이가 있었는데, 남학생은 '어머니의 희생'(40.4%)을, 여학생은 '혈연관계'(28.8%)를 어머니 신뢰의 이유로 지적한 경우가 가장 많았다. 또한 학업성적별로 볼 때, 상집단(34.4%)과 하집단(34.9%)은 '어머니의 희생'을 가장 많이 지적하였다면, 중집단은 '혈연관계'(25.9%)를 가장 많이 지적한 차이가 있었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어머니를 신뢰하는 가장 대표적인 이유는 아버지에 대해서와 마찬가지로 중학생이든 고등학생이든 모두 '어머니의 희생'이었으며 그 다음으로 '혈연관계'에 대한 인식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아들이 딸보다 어머니의 희생을 신뢰의 이유로 인식하는 경우가 현저하게 많았다. 학업성적별로는 상, 하집단보다 중집단에서 혈연관계를 어머니에 대한 신뢰의 이유로 더욱 중요하게 인식하는 차이가 있었다.

표 4는 청소년들이 친구를 신뢰하는 이유를 정리한 결과이다. 전체 반응 경향을 보면, '의지가 됨'에 대해 30% 이상의 반응율이 집중되고, 그 외에 '친밀함' '친구에 대한 무조건 신뢰' '나를 이해함'과 같은 반응이 모두 20%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의지가 됨'은 '솔직한 대화'를 할 수 있고 '고민을 상담할 수 있어' '의지가 된다'는 의미를 주로 포함하였다.

학교수준별로 보면, 중학생은 '의지가 됨'과 '친밀함'에 대해 동일하게 높은 반응율을 보였다. 고등학생은 '의지가 됨'에 대한 반응율이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나를 이해함'에 대한 반응이 높았다. 성별로는 남 녀 모두 '의지가 됨'에 대한 반응율이 높은 점에서 공통적이었다. 남학생은 '친밀함'을 두 번째로 많이 응답하였으나, 여학생은 '나를 이해함'을 두 번째로 많이 반응하였다.

학업성적별로는 상 중 하 집단 모두 '의지가 됨'을 가장 많이 지적하고 있는 점에서 공통점을 보였다. 그런데 학업성적 중집단은 '친구에 대한 무조건 신뢰'(27.7%)를 두 번째로, 상 하집단은 '친밀함'을 두 번째로 많이 지적하는 차이가 있었다.

그러므로 청소년은 학교수준별로나 남녀별로나 학업성적별로나 친구에 대해, 솔직히 고민을 상담할 수 있는 의지가 되는 대상이라는 점에서 신뢰할 수 있다는 사실을 가장 많이 지적하는 공통점이 있었다. 특별히 학업성적 중간집단은 상 하집단에 비해 친구이기 때문에 당연히 믿고 무조건 신뢰한다는 반응을 상대적으로 많이 하는 차이가 있었다.

청소년들이 교사를 신뢰하는 이유가 표 5에 정리되어 있다. 전체적으로 볼 때 '학업지도'(25.4%)와 '스승에 대한 무조건 신뢰'(22.2%)가 20% 이상으로 높은 반응율을 나타내었다. 그 다음으로 '아껴주고 관심있음' '존경함' '상담과 인성지도'에 대해 각각 10% 이상의 응답자가 지적했으며, 이 외에도 '부모와 같은 존재' '학생들을 위한 고생과 희생'이라는 반응 범주가 나타났다.

학교수준별로 확인한 차이가 나타났는데, 중학생 경우는 '학업지도'(38.7%)가 가장 높은 반응율을 나타내고 그 다음으로 '스승에 대한 무조건 신뢰'가 두 번째로 지적되었으며 '존경함' '상담과 인성지도'가 같은 비율로 반응되었다. 그러나 고등학생 경우는 '스승에 대한 무조건 신뢰'(22.3%)가 가장 높은 반응율을 나타내고, 그 다음으로 '아껴주고 관심있음' '존경함'의 순서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교사를 신뢰하는 이유에서 차이가 있었는데, 남학생은 '학업지도'를 가장 많이 지적하고, 그 다음으로 '스승에 대한 무조건 신뢰'를 지적한 반면에, 여학생은 '스승에 대한 무조건 신뢰'에 대한 반응율이 가장 높고, 그 다

표 5. 교사를 신뢰하는 이유

	전체	학교수준별		성별		학업성적별		
		중학생	고등학생	남	여	상집단	중집단	하집단
1. 학업지도	95 (25.4)	72 (38.7)	23 (12.2)	63 (31.2)	31 (18.5)	48 (23.1)	24 (26.7)	22 (30.6)
① 가르쳐주심	88 (23.5)	69 (37.1)	19 (10.1)	58 (28.7)	29 (17.3)	44 (21.2)	23 (25.6)	21 (29.2)
② 학업/진학/진로에 대한 지도	7 (1.9)	3 (1.6)	4 (2.1)	5 (2.5)	2 (1.2)	4 (1.9)	1 (1.1)	1 (1.4)
2. 스승에 대한 무조건 신뢰	83 (22.2)	41 (22.0)	42 (22.3)	40 (19.8)	43 (25.6)	40 (19.2)	25 (27.8)	18 (25.0)
① 스승이니까	51 (13.6)	25 (13.4)	26 (13.8)	19 (9.4)	32 (19.0)	22 (10.6)	17 (18.9)	12 (16.7)
② 무조건 믿음	32 (8.6)	16 (8.6)	16 (8.5)	21 (10.4)	11 (6.5)	18 (8.7)	8 (8.9)	6 (8.3)
3. 아껴주고 관심있음	55 (14.7)	18 (9.7)	37 (19.7)	25 (12.4)	29 (17.3)	30 (14.4)	14 (15.6)	10 (13.9)
① 나에 대한 이해와 관심	24 (6.4)	5 (2.7)	19 (10.1)	13 (6.4)	10 (6.0)	12 (5.8)	7 (7.8)	4 (5.6)
② 따뜻하고 편안함	18 (4.8)	11 (5.9)	7 (3.7)	6 (3.0)	12 (7.1)	8 (3.8)	5 (5.6)	5 (6.9)
③ 도움을 줌	6 (1.6)	1 (.5)	5 (2.7)	3 (1.5)	3 (1.8)	4 (1.9)	1 (1.1)	1 (1.4)
④ 나를 믿어줌	7 (1.9)	1 (.5)	6 (3.2)	3 (1.5)	4 (2.4)	6 (2.9)	1 (1.1)	-
4. 존경함	48 (12.8)	20 (10.8)	28 (14.9)	26 (12.9)	22 (13.1)	27 (13.0)	13 (14.4)	 8 (11.1)
① 믿음을 줌	18 (4.8)	8 (4.3)	10 (5.3)	9 (4.5)	9 (5.4)	16 (7.7)	2 (2.2)	-
② 인생선배	12 (3.2)	2 (1.1)	10 (5.3)	5 (2.5)	7 (4.2)	3 (1.4)	6 (6.7)	3 (4.2)
③ 현명함	10 (2.7)	5 (2.7)	5 (2.7)	6 (3.0)	4 (2.4)	6 (2.9)	2 (2.2)	2 (2.8)
④ 성실한 행동	6 (1.6)	4 (2.2)	2 (1.1)	5 (2.5)	1 (.6)	2 (1.0)	2 (2.2)	2 (2.8)
⑤ 존경함	2 (.5)	1 (.5)	1 (.5)	1 (.5)	1 (.6)	-	1 (1.1)	1 (1.4)
5. 상담과 인성지도	46 (12.3)	20 (10.8)	26 (13.8)	23 (11.4)	22 (13.1)	28 (13.5)	 8 (8.9)	 9 (12.5)
① 바른길로 이끌어 주심	32 (8.6)	19 (10.2)	13 (6.9)	15 (7.4)	16 (9.5)	21 (10.1)	4 (4.4)	6 (8.3)
② 조언/상담을 해주심	14 (3.7)	1 (.5)	13 (6.9)	8 (4.0)	6 (3.6)	7 (3.4)	4 (4.4)	3 (4.2)
6. 부모와 같은 존재	22 (5.9)	 3 (1.6)	19 (10.1)	13 (6.4)	 9 (5.4)	18 (8.7)	 4 (4.4)	 -
① 자식처럼 아껴주심	15 (4.0)	1 (.5)	14 (7.4)	9 (4.5)	6 (3.6)	13 (6.3)	2 (2.2)	-
② 부모와 같은 존재	7 (1.9)	2 (1.1)	5 (2.7)	4 (2.0)	3 (1.8)	5 (2.4)	2 (2.2)	-
7. 학생들을 위한 고생과 희생	21 (5.6)	 9 (4.8)	12 (6.4)	11 (5.4)	 9 (5.4)	15 (7.2)	 1 (1.1)	 4 (5.6)
8. 기타	 4 (1.1)	 3 (1.6)	 1 (.5)	 1 (.5)	 3 (1.8)	 2 (1.0)	 1 (1.1)	 1 (1.4)
계	374 (100.0)	186 (100.0)	188 (100.0)	202 (100.0)	168 (100.0)	208 (100.0)	90 (100.0)	72 (100.0)

음으로 '학업지도'를 지적하였다. 학업성적별 교사 신뢰의 이유를 분석해 보면, 상집단(23.1%)과 하집단(30.6%)의 경우 '학업지도'에 대한 반응율이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스승에 대한 무조건

신뢰'가 많이 지적되었다. 그러나 학업성적 중간 집단은 '스승에 대한 무조건 신뢰'(27.8%)에 대한 반응율이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학업지도'에 대한 반응율이 높은 차이가 있었다.

요약하면, 교사신뢰의 이유로서 '학업지도'와 '스승에 대한 무조건 신뢰'가 가장 중요하였고, 이외에도 '아껴주고 관심있음'이 의미있게 부각되었다. 또한 상대적으로 반응율은 낮았으나, '부모와 같은 존재' '학생들을 위한 고생과 희생'도 교사를 신뢰하는 중요한 이유로 부각되었다. 학교수준별로 보면 중학생은 학업을 지도해 준다는 사실이, 고등학생은 스승에 대한 무조건 신뢰가 가장 중요한 이유로 부각되는 차이가 있었다. 또한 성별로도 남자는 선생님의 학업지도를, 여자는 스승에 대한 무조건 신뢰를 가장 많이 반응한 차이가 있었다. 학업성적별로는 중집단에서 '스승에 대한 무조건 신뢰'를 가장 많이 지적하는 점에서 학업성적 상 하집단과 차이가 있었다.

청소년의 부, 모, 친구, 교사에 대한 신뢰의 정도

표 6은 청소년이 부, 모, 친구, 교사를 신뢰하는 정도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제시한 것이다. 청소년 집단 전체의 평균값을 비교해 보면, 모에 대한 신뢰가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부에 대한 신뢰, 친구에 대한 신뢰의 순서로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교사에 대한 신뢰는 부, 모, 친구

에 대한 신뢰에 비해 훨씬 낮은 평균을 보인다. 표준편차를 보면, 모에 대한 신뢰가 가장 작으며, 부와 교사에 대한 신뢰는 비교적 큰 값을 나타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로 미루어 보아, 청소년들은 부모를 가장 신뢰하고 그 다음으로 친구, 교사의 순서로 신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부모 중에서도 아버지보다는 어머니를 신뢰하는 정도가 더 높으며, 청소년 집단 내에서 어머니를 신뢰하는 정도는 아버지를 신뢰하는 정도보다 훨씬 비슷한 수준으로 인식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청소년들은 아버지를 어머니보다 평균적으로 신뢰하는 정도가 낮을 뿐만 아니라, 아버지를 신뢰하는 청소년과 그렇지 않은 청소년의 차이가 훨씬 크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7, 표 8, 표 9는 독립변인을 연령별 성별 학업성적별로 하위집단을 분류하였을 때, 부, 모, 친구, 교사에 대한 삼원변량분석의 결과를 제시한 표이다. 표 7을 보면 연령별 성별로 부나 모를 신뢰하는 정도에서 상호작용효과가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먼저 부에 대한 신뢰의 평균값을 비교해 보면, 중학생(남 $M=4.66$ $sd=.71$, 여 $M=3.95$ $sd=1.14$)과 고등학생(남 $M=4.35$ $sd=.90$,

표 6. 집단별 부모, 친구, 교사를 신뢰하는 정도의 평균과 표준편차⁶⁾

신뢰 정도	학교수준별		성별		학업성적별			전체
	중학생 M (SD)	고등학생 M (SD)	남 M (SD)	여 M (SD)	상집단 M (SD)	중집단 M (SD)	하집단 M (SD)	
부	4.30 (1.01)	4.33 (.89)	4.48 (.84)	4.15 (1.02)	4.46 (.82) ^b	4.20 (1.06) ^{ab}	4.10 (1.03) ^a	4.32 (.95)
모	4.50 (.74)	4.63 (.68)	4.63 (.69)	4.51 (.73)	4.68 (.61) ^b	4.47 (.75) ^a	4.40 (.84) ^a	4.57 (.71)
친구	4.04 (.92)	4.32 (.78)	4.30 (.77)	4.09 (.93)	4.25 (.82) ^a	4.17 (.84) ^a	4.08 (.97) ^a	4.20 (.86)
교사	3.59 (1.00)	3.38 (.98)	3.63 (.99)	3.30 (.97)	3.62 (.97) ^b	3.28 (1.00) ^a	3.32 (.97) ^a	3.47 (.99)

6) 학업성적별 집단의 사후검증(Scheffe)한 결과 동질집

단을 ^a ^b로 표시하였음.

표 7. 집단별 부모를 신뢰하는 정도 차이

부 신뢰정도	df	MS	F	모 신뢰정도	df	MS	F
학교수준별(1)	1	.03	.04	학교수준별(1)	1	1.39	2.84
성별(2)	1	13.21	15.64 ***	성별(2)	1	.92	1.90
학업성적별(3)	2	3.31	3.92 *	학업성적별(3)	2	2.78	5.72 **
(1)×(2)	1	12.96	15.35 ***	(1)×(2)	1	2.02	4.14 *
(1)×(3)	2	.33	.40	(1)×(3)	2	.52	1.06
(2)×(3)	2	.19	.23	(2)×(3)	2	.23	.48
(1)×(2)×(3)	2	1.01	1.20	(1)×(2)×(3)	2	.25	.51

여 $M=4.32$ $sd=.87$) 집단에서 상호작용 현상이 나타났다. 즉 중학생 시기에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아버지를 훨씬 더 신뢰하였으나, 고등학생 시기에는 남녀별로 아버지를 신뢰하는 정도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모에 대한 신뢰의 평균값을 비교해 볼 때도 부에 대한 신뢰에서와 동일한 현상이 나타났다. 모에 대한 신뢰의 정도에서 중학생(남 $M=4.64$ $sd=.67$, 여 $M=4.36$ $sd=.78$)과 고등학생(남 $M=4.61$ $sd=.70$, 여 $M=4.64$ $sd=.65$) 집단은 성별로 상호작용 현상을 보였다. 즉 중학생에서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어머니를 더욱 신뢰하였으나, 고등학생에서는 오히려 이와 대조되는 경향이 나타났다. 이러한 상호작용 분석 결과로 미루어, 중학생 시기에는 아들이 부모를 더욱 신뢰하나, 청소년기를 지나면서 딸이 부모를 신뢰하는 정도가 점차 증가하여, 고등학생 시기에는 결국 아들이나 딸이나 부모에 대한 신뢰 정도에서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다.

표 7에서 성별 부에 대한 신뢰 주효과가 $p<.001$ 수준에서 매우 유의한 차이가 있으나,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학교수준별 성별 상호작용 효과가 있기 때문에 주효과에 대한 추가적인 설

명은 불필요하다. 표 7에서 보면 학업성적별로 부에 대한 신뢰에서 주효과가 있었다. 표 6에서 하위집단별 평균을 비교해 보면, Scheffe검증의 결과 학업성적 상집단이 가장 높은 평균을 보이고 그 다음으로 중집단 하집단의 순서로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공부를 잘하는 자녀일수록 아버지를 신뢰하는 정도가 높다는 설명을 할 수 있다. 표 7을 보면 모에 대한 신뢰 정도에 있어서 학업성적별로 주효과($p<.01$)가 나타났다. 표 6에서 학업성적별 모에 대한 신뢰 정도의 평균을 비교해 보면, Scheffe검증 결과 상집단이 중, 하집단보다 모에 대한 신뢰 정도에서 높은 값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학업성적이 높을수록 어머니를 더욱 신뢰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그러므로 학업성적이 높은 자녀일수록 부모를 신뢰하는 정도가 더 높은 것으로 요약된다.

표 8은 하위집단별로 친구를 신뢰하는 정도의 차이를 변량분석한 결과로서, 학교수준별($p<.001$) 성별($p<.05$) 주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표 6에서 하위집단별 평균값을 비교해 보면, 학교수준별로는 고등학생이 중학생보다 친구에 대해 더욱 신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성별로는 남학생

표 8. 집단별 친구를 신뢰하는 정도의 차이

	df	MS	F
학교수준별(1)	1	9.59	13.47 ***
성별(2)	1	4.51	6.32 *
학업성적별(3)	2	.59	.83
(1)×(2)	1	1.75	2.45
(1)×(3)	2	.99	1.38
(2)×(3)	2	.47	.66
(1)×(2)×(3)	2	1.05	1.47

이 여학생보다 친구에 대한 신뢰의 평균이 더 높았다.

표 9는 하위집단별 교사 신뢰의 정도를 삼원 변량분석한 결과이다. 학교수준별 성별 상호작용 효과($p < .05$)가 있었는데, 각 하위집단별 평균을 구한 결과 중학생(남 $M=3.91$ $sd=.91$, 여 $M=3.26$ $sd=.97$)과 고등학생(남 $M=3.42$ $sd=.99$, 여 $M=3.33$ $sd=.97$)은 상호작용의 패턴을 나타내었다. 즉 중학생의 경우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훨씬 교사에 대한 신뢰의 정도가 높았으나, 청소년기 동안 남학생은 교사를 신뢰하는 정도가 많이 낮아지고 여학생은 낮은 신뢰도를 거의 유지함으

표 9. 집단별 교사를 신뢰하는 정도의 차이

	df	MS	F
학교수준별(1)	1	6.88	7.52 **
성별(2)	1	16.47	17.99 ***
학업성적별(3)	2	4.84	5.29 **
(1)×(2)	1	5.25	5.73 *
(1)×(3)	2	.29	.32
(2)×(3)	2	.53	.57
(1)×(2)×(3)	2	.22	.24

로써, 고등학생이 되었을 때 교사에 대한 신뢰 정도에 있어서 남녀 차이가 없어졌다. 표 9에서 학교수준별($p < .01$) 성별($p < .001$) 교사에 대한 신뢰 정도에서 주효과가 있었다. 표 6의 평균을 비교해 보면, 학교수준별로는 중학생이 고등학생보다 높은 값을, 성별로는 남자가 여자보다 높은 값을 나타내었다. 이러한 결과는 학교수준별 성별 상호작용 결과와 관련하여 볼 때, 남학생들이 중학생 시기에 교사에 대한 신뢰 정도가 높은 것에서 기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학업성적별 교사의 신뢰 정도를 분석한 결과를 표 9에서 보면, $p < .01$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표 6에서 하위집단별 평균을 Scheffe 검정으로 비교해 보면, 상집단이 중 하집단보다 교사에 대한 신뢰 정도가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공부를 우수하게 잘 하는 학생일 수록 선생님을 더욱 신뢰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부모의 자녀, 배우자, 교사에 대한 신뢰의 이유

청소년 자녀를 둔 부모의 입장에서 자녀와 배우자 및 교사를 신뢰하는 이유를 분석한 결과가 표 10, 표 11, 표 12에 제시되어 있다.

표 10은 부모의 입장에서 자녀를 신뢰하는 이유를 정리한 결과이다. 전체적으로 볼 때, '성실함'과 '정직함'이 모두 30% 이상의 높은 비율을 보이고, 그 다음으로 '혈연관계'가 중요하게 나타났다. 이 외에도 '자녀에 대한 기대와 대화' '순종함' '학업에 충실'이 신뢰의 이유로 부각되었다. 연령별로 보면, 30대 경우에 '정직함'의 반응율이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성실함'과 '혈연관계'의 순서를 나타내었다. 그러나 40대와 50대의 경우는 '성실함'의 반응율이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정직함' '혈연관계'의 순서로 나타났다. 비

표 10. 자녀를 신뢰하는 이유

	전체	연령별			성별		학력별	
		30대	40대	50대	부	모	고졸이하	대졸이상
1. 성실함	298 (31.5)	29 (27.1)	237 (32.1)	21 (33.3)	142 (30.9)	156 (32.0)	166 (28.2)	127 (37.0)
①자기일은 스스로 잘함	98 (10.3)	8 (7.5)	80 (10.8)	5 (7.9)	48(10.5)	50(10.2)	61(10.4)	36(10.5)
②믿음직한 행동	63 (6.7)	7 (6.5)	50 (6.8)	4 (6.3)	21(4.6)	42(8.6)	37(6.3)	26(7.6)
③성실함	59 (6.2)	6 (5.6)	48 (6.5)	5 (7.9)	29(6.3)	30(6.1)	30(5.1)	28(8.2)
④평소 생활태도	48 (5.1)	5 (4.7)	36 (4.9)	5 (7.9)	25(5.4)	23(4.7)	21(3.6)	25(7.3)
⑤약속지킴	15 (1.6)	1 (.9)	12 (1.6)	1 (1.6)	10(2.2)	5(1.0)	7(1.2)	7(2.0)
⑥책임감 있음	15 (1.6)	2 (1.9)	11 (1.5)	1 (1.6)	9(2.0)	6(1.2)	10(1.7)	5(1.5)
2. 정직함	284 (30.0)	34 (31.8)	218 (29.5)	20 (31.7)	133(29.0)	151(30.9)	169(28.7)	110(32.1)
①정직함	146 (15.4)	19 (17.8)	114 (15.4)	7 (11.1)	71(15.5)	75(15.4)	89(15.1)	54(15.7)
②올바른 사고/행동	70 (7.4)	5 (4.7)	55 (7.5)	4 (6.3)	23(5.0)	47(9.6)	41(7.0)	27(7.9)
③착함	68 (7.2)	10 (9.3)	49 (6.6)	9 (14.3)	39(8.5)	29(5.9)	39(6.6)	29(8.5)
3. 혈연관계	154 (16.3)	21 (19.6)	117 (15.9)	9 (14.3)	75(16.3)	79(16.2)	114(19.4)	37(10.8)
①내 자식이므로	73 (7.7)	11 (10.3)	55 (7.5)	4 (6.3)	35(7.6)	38(7.8)	53(9.0)	19(5.5)
②자녀에 대한 믿음	61 (6.4)	7 (6.5)	46 (6.2)	5 (7.9)	32(7.0)	29(5.9)	44(7.5)	15(4.4)
③부모이므로	9 (1.0)	1 (.9)	7 (.9)	-	3(.7)	6(1.2)	9(1.5)	-
④가족이므로	6 (.6)	2 (1.9)	4 (.5)	-	4(.9)	2(.4)	5(.8)	1(.3)
⑤가까운 관계	5 (.5)	-	5 (.7)	-	1(.2)	4(.8)	3(.5)	2(.6)
4. 자녀에 대한 기대와 대화	82 (8.7)	9 (8.4)	64 (8.7)	6 (9.5)	37(8.1)	45(9.2)	53(9.0)	29(8.5)
①자녀와 대화	63 (6.7)	8 (7.5)	50 (6.8)	4 (6.3)	21(4.6)	42(8.6)	42(7.1)	21(6.1)
②가정교육	12 (1.3)	1 (.9)	9 (1.2)	1 (1.6)	10(2.2)	2(.4)	5(.8)	7(2.0)
③자녀에 대한 기대	7 (.7)	-	5 (.7)	1 (1.6)	6(1.3)	1(.2)	6(1.0)	1(.3)
5. 순종함	69 (7.3)	11 (10.3)	50 (6.8)	4 (6.3)	39(8.5)	30(6.1)	45(7.6)	22(6.4)
6. 학업에 충실	41 (4.3)	3 (2.8)	35 (4.7)	2 (3.2)	25(5.4)	16(3.3)	27(4.6)	14(4.1)
①공부를 열심히 함/노력	22 (2.3)	1 (.9)	20 (2.7)	-	15(3.3)	7(1.4)	12(2.0)	10(2.9)
②충실한 학교생활	19 (2.0)	2 (1.9)	15 (2.0)	2 (3.2)	10(2.2)	9(1.8)	15(2.5)	4(1.2)
7. 기타	19 (2.0)	-	17 (2.3)	1 (1.6)	8(1.7)	11(2.2)	15(2.5)	4(1.2)
①종교	18 (1.9)	-	16 (2.2)	1 (1.6)	8(1.7)	10(2.0)	14(2.4)	4(1.2)
②기타	1 (.1)	-	1 (.1)	-	-	1(.2)	1(.2)	-
계	947 (100.0)	107 (100.0)	738 (100.0)	63 (100.0)	459(100.0)	488(100.0)	589(100.0)	343(100.0)

록 30대는 40대나 50대와 달리 '정직함'과 관련된 반응이 가장 많았지만, '성실함'에 대해서도 매우 높은 반응율을 보였다.

표 10에서 성별 분석결과를 보면, 부와 모집단 모두 자녀의 '성실함'을 가장 중요하게 보고 그 다음으로 '정직함' '혈연관계'의 순서로 응답하였다. 그러므로 자녀를 신뢰하는 이유에 있어서 아버지나 어머니의 시각은 공통적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부모의 학력별로 분석한 결과는, 고졸 이하의 집단에서 '정직함'이 가장 높은 반응율을 보이고, 그 다음으로 '성실함' '혈연관계'의 순서로 나타났다. 그러나 대졸 이상의 집단에서는 '성실함'이 가장 높은 반응율을 나타내고, 그 다음으로 '정직함' '혈연관계'의 순서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아버지나 어머니에 관계없이 부모들은 자녀의 성실함과 정직함을 신뢰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로 간주하고, 그 다음으로 혈연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비록 부모의 학력과 연령에 따라 성실과 정직 중에서 보다 중요한 이유로 인식하는 정도에 약간의 차이가 있었지만, 성실함과 정직함은 상호 밀접히 관련된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 외에 '순종함'과 '학업에 충실'도 의미있는 개념범주로 확인되었다.

표 11은 배우자를 신뢰하는 이유를 정리한 결과이다. 전체적으로 볼 때, '성실함'과 '가족을 위한 헌신'이 각각 20% 이상의 높은 반응율을 보였으며, 그 다음으로 '정직함' '동반자에 대한 무조건 신뢰' '대화와 상호배려'가 10% 이상의 반응을 각각 나타내었다. 그 다음으로 '사랑함'도 신뢰의 이유로 포함이 되었으나, 다른 이유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반응율이 낮았다. 연령별로 비교해 보면 30대 40대 50대 집단 모두 '성실함'을 가장 많이 지적하고 그 다음으로 '가족을 위한 헌신' '정직함'과 같은 순서로 응답을 한 점에서

일치하였다. 단 30대의 경우에 '동반자에 대한 무조건 신뢰'가 '성실함'과 동일한 비율로 높은 반응을 보이는 점이 특별하다.

성별로는 부집단의 경우에 '가족을 위한 헌신'이 가장 높은 반응율을 보이고 그 다음으로 '성실함' '동반자에 대한 무조건 신뢰'의 순서로 나타났다. 모집단의 경우는, '성실함'이 가장 높은 반응율을, 그 다음으로 '정직함' '가족을 위한 헌신' '동반자에 대한 무조건 신뢰'의 순서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아내는 남편을 신뢰하는 중요한 이유로 성실함과 정직함을 가장 많이 고려한다면, 남편은 아내가 가족을 위해 얼마나 헌신적인가 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신뢰의 이유로 생각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발견되고 있다.

학력별로는 고졸 이하의 집단이든 대졸 이상의 집단이든 모두 배우자를 신뢰하는 이유로서 '성실함'을 가장 많이 지적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가족을 위한 헌신' '정직함' '동반자에 대한 무조건 신뢰'의 순서로 동일하게 응답하였다.

따라서 성인들이 배우자를 신뢰하는 이유는 연령이나 학력수준에 관계없이 대체로 '성실함'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그 다음으로 '가족을 위한 헌신' '정직함' '동반자에 대한 무조건 신뢰'의 순서로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별히 남편의 입장에서는 아내가 가정생활에 충실하며 '가족을 위해 헌신'을 하는 것이, 아내의 입장에서는 남편이 성실하고 정직한 것이 상호 신뢰의 보다 중요한 이유로 부각됨으로써, 부부간의 시각 차이가 시사되었다.

표 12는 교사를 신뢰하는 이유를 정리한 결과이다. 모집단만 교사신뢰 문항이 측정되었기 때문에 성별 분석은 제외되었다. 전체적으로 볼 때, '교육자에 대한 무조건 신뢰'가 거의 40%에 가까운 비율을 차지하였다. 그 다음으로 '학생 이

표 11. 배우자를 신뢰하는 이유

	전체	연령별			성별		학력별	
		30대	40대	50대	부	모	고졸이하	대졸이상
1. 성실함	228 (24.8)	21 (20.8)	182 (25.2)	16 (25.8)	92 (20.1)	136 (29.5)	132 (23.3)	93(27.3)
①성실함	128 (13.9)	9 (8.9)	110 (15.2)	5 (8.1)	41(9.0)	87 (18.9)	80 (14.1)	48(14.1)
②평소 생활태도	49 (5.3)	5 (5.0)	36 (5.0)	7 (11.3)	32(7.0)	17 (3.7)	23 (4.1)	25(7.3)
③책임감 있음	31 (3.4)	4 (4.0)	20 (2.8)	3 (4.8)	9(2.0)	22 (4.8)	19 (3.4)	10(2.9)
④현명함	17 (1.8)	1 (1.0)	15 (2.1)	1 (1.6)	9(2.0)	8 (1.7)	7 (1.2)	10(2.9)
⑤생활력 있음	3 (.3)	2 (2.0)	1 (.1)	-	1(.2)	2 (.4)	3 (.5)	-
2. 가족을 위한 헌신	197 (21.4)	18 (17.8)	160 (22.2)	11 (17.7)	112(24.5)	85 (18.4)	126 (22.2)	71(20.8)
①가정을 위해 헌신함	45 (4.9)	5 (5.0)	34 (4.7)	5 (8.1)	32(7.0)	13 (2.8)	24 (4.2)	21(6.2)
②가정에 충실함	43 (4.7)	5 (5.0)	34 (4.7)	1 (1.6)	19(4.1)	24 (5.2)	27 (4.8)	16(4.7)
③가족을 위해 고생함	35 (3.8)	1 (1.0)	33 (4.6)	-	19(4.1)	16 (3.5)	26 (4.6)	9(2.6)
④가족을 잘 이끌어감	27 (2.9)	1 (1.0)	21 (2.9)	4 (6.5)	26(5.7)	1 (.2)	14 (2.5)	13(3.8)
⑤가족을 소중히 함	25 (2.7)	3 (3.0)	21 (2.9)	-	8(1.7)	17 (3.7)	16 (2.8)	9(2.6)
⑥가정적임	22 (2.4)	3 (3.0)	17 (2.4)	1 (1.6)	8(1.7)	14 (3.0)	19 (3.4)	3(.9)
3. 정직함	150 (16.3)	18 (17.8)	118 (16.3)	8 (12.9)	57(12.4)	93 (20.2)	96 (16.9)	52(15.2)
①정직함	66 (7.2)	10 (9.9)	50 (6.9)	4 (6.5)	23(5.0)	43 (9.3)	41 (7.2)	24(7.0)
②믿음직함	41 (4.5)	5 (5.0)	33 (4.6)	-	14(3.1)	27 (5.9)	29 (5.1)	12(3.5)
③올바름	38 (4.1)	3 (3.0)	30 (4.2)	4 (6.5)	17(3.7)	21 (4.6)	23 (4.1)	14(4.1)
④약속을 지킴	5 (.5)	-	5 (.7)	-	3(.7)	2 (.4)	3 (.5)	2(.6)
4. 동반자에 대한 무조건 신뢰	139 (15.1)	21 (20.8)	101 (14.0)	12 (19.4)	75(16.4)	64 (13.9)	92 (16.2)	46(13.5)
①무조건 믿음	74 (8.1)	11 (10.9)	54 (7.5)	7 (11.3)	43(9.4)	31 (6.7)	48 (8.5)	26(7.6)
②배우자이므로	33 (3.6)	6 (5.9)	23 (3.2)	2 (3.2)	12(2.6)	21 (4.6)	23 (4.1)	9(2.6)
③인생의 동반자	21 (2.3)	2 (2.0)	18 (2.5)	1 (1.6)	14(3.1)	7 (1.5)	14 (2.5)	7(2.1)
④가족이므로	11 (1.2)	2 (2.0)	6 (.8)	2 (3.2)	6(1.3)	5 (1.1)	7 (1.2)	4(1.2)
5. 대화와 상호배려	122 (13.3)	14 (13.9)	95 (13.2)	11 (17.7)	72(15.7)	50 (10.8)	76 (13.4)	45(13.2)
①서로에 대한 믿음	44 (4.8)	3 (3.0)	35 (4.8)	5 (8.1)	27(5.9)	17 (3.7)	28 (4.9)	15(4.4)
②서로에 의논함	31 (3.4)	4 (4.0)	22 (3.0)	5 (8.1)	21(4.6)	10 (2.2)	17 (3.0)	14(4.1)
③대화	19 (2.1)	5 (5.0)	14 (1.9)	-	8(1.7)	11 (2.4)	13 (2.3)	6(1.8)
④의지가 됨	15 (1.6)	-	13 (1.8)	1 (1.6)	9(2.0)	6 (1.3)	10 (1.8)	5(1.5)
⑤서로에 대한 배려	13 (1.4)	2 (2.0)	11 (1.5)	-	7(1.5)	6 (1.3)	8 (1.4)	5(1.5)
6. 사랑함	55 (6.0)	8 (7.9)	43 (6.0)	2 (3.2)	34(7.4)	21 (4.6)	32 (5.6)	20(5.9)
7. 기타	28 (3.0)	1 (1.0)	23 (3.2)	2 (3.2)	16(3.5)	12 (2.6)	13 (2.3)	14(4.1)
①종교	23 (2.5)	-	20 (2.8)	2 (3.2)	14(3.1)	9 (2.0)	11 (1.9)	11(3.2)
②기타	5 (.5)	1 (1.0)	3 (.4)	-	2(.4)	3 (.7)	2 (.4)	3(.9)
계	919 (100.0)	101 (100.0)	722 (100.0)	62 (100.0)	458(100.0)	461 (100.0)	567 (100.0)	341(100.0)

표 12. 교사를 신뢰하는 이유: 어머니 집단

	전체	연령별			학력별	
		30대	40대	50대	고졸이하	대졸이상
1. 교육자에 대한 무조건 신뢰	149 (39.0)	20 (31.3)	119 (39.9)	3 (42.9)	111 (39.9)	38 (38.8)
①교육자이므로	86 (22.5)	9 (14.1)	71 (23.8)	3 (42.9)	63 (22.7)	23 (23.5)
②무조건 신뢰	44 (11.5)	9 (14.1)	33 (11.1)	-	35 (12.6)	9 (9.2)
③학생지도의 역할	19 (5.0)	2 (3.1)	15 (5.0)	-	13 (4.7)	6 (6.1)
2. 학생 이해와 사랑	84 (22.0)	15 (23.4)	65 (21.8)	2 (28.6)	60 (21.6)	22 (22.4)
①학생이 교사를 따름	35 (9.2)	8 (12.5)	24 (8.1)	1 (14.3)	26 (9.4)	8 (8.2)
②학생에 대한 이해와 관심	32 (8.4)	4 (6.3)	27 (9.1)	1 (14.3)	22 (7.9)	9 (9.2)
③학생을 사랑함	17 (4.5)	3 (4.7)	14 (4.7)	-	12 (4.3)	5 (5.1)
3. 성실함	68 (17.8)	11 (17.2)	54 (18.1)	2 (28.6)	45 (16.2)	21 (21.4)
①성실함	24 (6.3)	1 (1.6)	22 (7.4)	1 (14.3)	14 (5.0)	10 (10.2)
②믿음직함	22 (5.8)	4 (6.3)	17 (5.7)	-	14 (5.0)	6 (6.1)
③홀륭함	13 (3.4)	5 (7.8)	7 (2.3)	1 (14.3)	10 (3.6)	3 (3.1)
④모범이 됨	9 (2.4)	1 (1.6)	8 (2.7)	-	7 (2.5)	2 (2.0)
4. 학생에 대한 올바른 지도	59 (15.4)	14 (21.9)	44 (14.8)	-	46 (16.5)	11 (11.2)
①가르치고 지도함	36 (9.4)	6 (9.4)	29 (9.7)	-	27 (9.7)	7 (7.1)
②올바른 길로 인도함	23 (6.0)	8 (12.5)	15 (5.0)	-	19 (6.8)	4 (4.1)
5. 기타	22 (5.8)	4 (6.3)	16 (5.3)	-	16 (5.8)	6 (6.1)
계	382 (100.0)	64 (100.0)	298 (100.0)	7 (100.0)	278 (100.0)	98 (100.0)

해와 사랑' '성실함' '학생에 대한 올바른 지도'의 순서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보면, 30대 40대 50대 모두 '교육자에 대한 무조건 신뢰'를 가장 많이 지적하고, '학생 이해와 사랑'을 두 번째로 많이 지적하는 점에서 일치하였다. 학력별로도 고졸 이하집단이든 대졸 이상 집단이든 모두, '교육자에 대한 무조건 신뢰' 반응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학생 이해와 사랑'이 두 번째를 차지하였다.

이러한 결과로 미루어 보아 청소년 자녀를 둔

어머니집단에서는 연령이나 학력에 관계없이 교사가 교육자라는 이유만으로도 무조건 신뢰를 한다는 반응을 가장 대표적으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학생을 이해하고 사랑하며 정서적인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신뢰한다는 반응을 두 번째로 많이 하였다.

부모의 자녀, 배우자, 교사에 대한 신뢰의 정도

부모집단이 청소년 자녀와, 본인의 배우자 및,

표 13. 집단별 자녀, 배우자, 교사를 신뢰하는 정도의 평균과 표준편차

신뢰 정도	하위 집단	연령별			성별		학력별		전체 M (SD)
		30대	40대	50대	부	모	고졸이하	대졸이상	
		M (SD)	M (SD)	M (SD)	M (SD)	M (SD)	M (SD)	M (SD)	
자녀		4.56 (.75)	4.58 (.65)	4.66 (.56)	4.58 (.64)	4.58 (.68)	4.54 (.71)	4.65 (.56)	4.58 (.66)
배우자		4.48 (.85)	4.62 (.69)	4.79 (.50)	4.71 (.61)	4.52 (.78)	4.55 (.78)	4.72 (.57)	4.61 (.71)
교사		4.13 (.83)	4.14 (.79)	4.38 (.52)	-	-	4.13 (.81)	4.15 (.80)	4.13 (.81)

자녀를 가르치는 교사들에 대한 신뢰의 정도를 평균값을 구해 비교하였다. 표 13의 전체 집단 평균값을 보면, 배우자에 대한 신뢰가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자녀에 대한 신뢰가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교사에 대한 신뢰는 배우자나 자녀에 대한 신뢰보다 낮은 값을 나타내었다.

연령별 성별 학력별 하위집단별로 자녀에 대한 신뢰의 정도에서 차이가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해 삼원변량분석을 했다. 분석결과, 세 독립변인간의 모든 상호작용에서 의미있는 차이가 없었다. 뿐만 아니라 연령별($F=.34$) 성별($F=.84$) 학력별($F=.33$) 주효과도 모두 의미있는 차이가 없었다. 따라서 부모의 연령이나 성별 및 학력에 따라 자녀를 신뢰하는 정도에 전혀 차이가 없을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연령별 성별 학력별로 배우자를 신뢰하는 정도에서 차이가 있는지 여부를 삼원변량분석하였다. 자녀에 대한 신뢰 정도를 분석한 결과와 마찬가지로, 세 독립변인간의 모든 상호작용이 유의미하지 않았다. 또한 연령별($F=.37$) 성별($F=1.71$) 학력별($F=.27$) 주효과도 모두 통계적으로 의미가 없었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집단의 연령이나 성별 및 학력수준에 따라 배우자를 신뢰하는 정도에 전혀 차이가 없음을 보여준다.

한편 교사에 대한 신뢰의 경우는 어머니집단만을 대상으로 측정하였기 때문에, 성별은 제외

하고 연령별 학력별 교사신뢰의 정도를 이원변량분석하였다. 그 결과 두 독립변인간의 상호작용이 의미있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F=.84$) 나타났다. 연령별($F=.22$) 학력별($F=.05$) 주효과도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므로 어머니의 연령이 30대 40대 50대이든 간에, 또는 어머니의 학력수준이 고졸 이하이거나 대졸 이상이거나 관계없이 선생님을 신뢰하는 정도에는 일관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부모와 자녀의 인간관계 신뢰 정도의 상호 관계

부모가 자녀나 배우자 및 교사에 대해 신뢰하는 정도가 결과적으로 자녀의 다른 사람에 대한 신뢰와 어떠한 관련을 갖고 있는지를 분석한 결과가 표 14에 제시되어 있다. 먼저 청소년 자녀 집단의 아버지에 대한 신뢰를 살펴보면, 아버지 집단의 자녀에 대한 신뢰($r=.13$)나 아버지 집단의 배우자에 대한 신뢰($r=.18$)와 정적인 상관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런데 특별히 흥미로운 사실은, 어머니 집단의 배우자에 대한 신뢰와 더욱 정적인 관계($r=.25$)를 보이는 점이다. 이러한 결과는 아버지가 자녀를 신뢰하고 어머니를 신뢰할수록, 청소년 자녀가 아버지를 더욱 신뢰하는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준다. 그런데 어머니가 남편을 더욱 신뢰할수록 자녀들도 아버지를 더욱

표 14. 부모와 자녀의 인간관계 신뢰 정도 상관관계

부모 집단의 신뢰		청소년 집단의 신뢰		아버지 신뢰	어머니 신뢰	친구 신뢰	교사신뢰
		자녀 신뢰	배우자 신뢰				
아버지 집단	자녀 신뢰	.13**	.16***	.06	.12**		
	배우자 신뢰	.18***	.10*	.03	-.05		
어머니 집단	자녀 신뢰	.09*	.16***	.05	.09*		
	배우자 신뢰	.25***	.07	.03	.09*		
	교사 신뢰	.13**	.11*	.05	.20***		

신뢰($r=.25$)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아버지가 자녀를 신뢰해 주는 정도라든가, 아버지가 어머니를 신뢰해 주는 정도보다도, 어머니가 아버지를 신뢰해 주는 정도가 자녀의 아버지에 대한 신뢰에 훨씬 더 정적으로 관련되어 있다는 점이 특별히 흥미롭다.

청소년 자녀의 어머니에 대한 신뢰는, 어머니의 자녀에 대한 신뢰($r=.16$)와 정적인 관계에 있었지만, 어머니의 배우자에 대한 신뢰와는 무상관을 나타내었다($r=.07$). 아버지가 어머니를 신뢰해 주는 정도와 자녀가 어머니를 신뢰하는 정도는, 낮은 정적 상관을 보였다($r=.10$).

한편 어머니의 교사에 대한 신뢰와 자녀의 교사에 대한 신뢰간의 상관을 구한 결과 정적 상관계수($r=.20$)를 보였다. 즉 어머니가 교사에 대해 긍정적으로 신뢰할수록 자녀도 그러한 신뢰의 정도가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부모자녀간의 신뢰정도와 교사에 대한 신뢰에 관한 모자간의 결과로 미루어 보아, 부모가 주변사람에 대해 갖고 있는 신뢰의 정도가 자녀의 신뢰형성과 관련을 갖고 있을 가능성이 시사된다. 특별히 어머니가 아버지를 얼마나 신뢰하는 정도가 자녀의 아버지에 대한 신뢰와 정적인 관계($r=.25$)를 갖는 사실은, 가정에서 부부관계가 부모자녀관계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보여준다.

논의 및 결론

살아가면서 믿었던 사람으로부터 크게 실망하거나 상처를 받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 '설마 그 사람이 그럴 줄은 몰랐다'고 생각하는 경우, 처음에 상대방을 믿었을 때 중요하게 작용했던 단서가 무엇이었는가를 한번 질문해 볼 필요가 있다. 상대방이 변했을 수도 있지만, 상대방을 바라보는 사람의 시각이 변했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처음에 상대방을 겉으로 드러나는 능력의 면에서 인정하고, 나중에는 인간적인 성숙이나 도덕성의 면에서 바라보게 된다면, 일관된 기준을 적용할 때보다 괴리가 발생하기 쉬운 것이다. 개별적인 성취에 초점을 두느냐 또는 집단의 조화를 위한 관계에서의 역할과 기여에 초점을 두느냐에 따라, 동일한 사람에 대한 신뢰의 정도가 달라질 수 있다.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에 집중한 신뢰 판단인지, 정서적인 교류와 인간적인 정을 나누며 상호 의지할 수 있는 관계에 토대한 믿음인지에 따라 신뢰의 깊이가 달라질 수 있다. 한국 사람들은 어떤 이유로 다른 사람을 신뢰하며, 그러한 신뢰형성과

정에서 어떠한 토착적인 심리들이 작용하는가에 대한 답을, 이 연구에서는 모색해 보고자 하였다.

이 연구의 제한점 및 후속연구를 위한 시사점들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교사에 대한 신뢰는 어머니 집단에서만 측정하였는데, 후속연구에서는 아버지 집단에서도 측정하여 비교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이 연구에서 신뢰 점수가 높게 나타난 것이, 실제로 청소년과 부모들의 인간관계에서 높은 신뢰를 반영하는 것일 수도 있으나, 질문지 방법이 갖는 근본적인 한계 즉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방향으로 응답하려는 경향이 작용했을 가능성도 있다. 그러므로 앞으로 인간관계에 대한 신뢰 결과들을 누적하여 비교 검토함이 필요하다. 셋째, 한국 문화에서 부모 자녀관계는 신뢰를 넘어선 혈육지정의 관계라고 할 수 있으므로, 후속연구에서는 신뢰를 포괄하는 새로운 개념적 설명을 시도해 볼 필요가 있다. 넷째, 이 연구에서는 청소년집단으로 중학생과 고등학생을 표집대상으로 하였는데, 후속연구에서는 초등학생과 대학생도 포함하여 청소년 발달과정에 따른 인간관계(부모, 교사, 친구)에서 신뢰 발달이나 형성과정에 대해서도 심도있게 검토해 보고자 한다. 다섯째, 이 연구의 결과에 기초한 논의를 한국인에게 특유한 것으로 해석하려면, 후속연구에서는 다른 문화의 결과와 비교해 보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한국 사람들의 인간관계와 관련된 신뢰의식의 토착심리를 규명하기 위해, 청소년에게 의미있는 인간관계인 부모, 친구, 교사에 대한 신뢰와, 부모에게 의미있는 인간관계인 자녀, 배우자, 교사에 대한 신뢰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각각의 인간관계에서 신뢰하는 이유에 관해 질적으로 분석하고, 각 관계에 대한 신뢰의 정도를 양적으로 분석한 이 연구에서의 결과들을 종합하여 볼 때,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논의가

가능하다.

첫째, 한국 사람들은 개인의 개별적인 특성에 초점을 두고 신뢰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관계에 대해 무조건적이고 절대적인 신뢰를 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신뢰할만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에 근거하여 신뢰하기 보다는, 그 사람과의 특별한 관계와 그 사람의 관계 역할 그 자체에 대한 무조건적인 신뢰가 현저하였다. 예를 든다면 부모자녀관계에서 자녀들은 부모가 '혈연으로 맺어진 관계'이기 때문에 신뢰의 다른 이유가 필요없다는 생각을 하였다. 즉 '내 아버지이니까, 내 어머니이니까, 내 부모이니까, 내 가족이니까 믿는다고' 응답하였다. 이와 같이 관계를 무조건 믿는 태도는, 부모의 입장에서 자녀를 신뢰하는 이유를 통해서도 일관되게 확인할 수 있었다. 즉 '내 자식이니까, 내가 부모이니까, 내 가족이니까' 무조건 믿을 수밖에 없다는 반응이다.

부모와 자녀간의 혈연으로 맺어진 관계에서만 이 아니라, 다른 인간관계에서도 관계 그 자체에 대한 맹목적 신뢰가 동일하게 나타났다. 예컨대 자녀를 둔 학부모로서 어머니가 교사를 신뢰하는 이유에서도 유사한 패턴이 발견되었다. 어머니가 교사를 신뢰하는 가장 대표적인 이유는 '교육자에 대한 무조건 신뢰' 이었다. 즉 10명 중에서 4명 정도는 교사가 교육자의 역할을 하니가 무조건 신뢰하는 것이며 다른 이유가 필요없다는 반응을 하였다. 이와 같이 학부모 입장에서의 교사에 대한 신뢰만이 아니라, 교사학생관계를 바라보는 학생의 입장에서 교사에 대한 신뢰의 이유도 마찬가지였다. 학생들은 선생님을 스승이니가 '스승에 대해 무조건 신뢰'한다는 반응을 하였다. 즉 교사와 학생의 관계라는 특별한 인간관계 그 자체가 무조건 신뢰해야 하는 관계라는 인식을 갖고 있었다. 이외에 성인들의 배우자와

관계에서도 동일한 경향이 발견되었다. 배우자를 신뢰하는 이유 중에, '동반자에 대한 무조건 신뢰'라는 반응이 있었다. 즉 배우자이므로, 인생의 동반자이므로, 내 가족이므로 무조건 믿는다는 반응을 하였다. 뿐만 아니라 청소년들의 친구 관계에서도, 친구이므로 당연히 믿는다는 '친구에 대한 무조건 신뢰'의 반응이 친구를 신뢰하는 중요한 이유로 부각되었다.

이와 같이 이 연구에서 질문한 대상에 대한 신뢰 이유들에서 모두 그 사람과의 관계에 토대를 두어, 다른 어떤 이유가 필요없이 그러한 관계적 특성 때문에 그 사람을 당연히 신뢰한다는 반응들이 일관되게 나타났다. 부모의 입장에서든 자녀의 입장에서든 혈연으로 맺어진 부모자녀관계이기 때문에, 학부모의 입장에서든 학생의 입장에서든 교사에 대해서는 교육자 또는 스승의 관계이기 때문에, 남편이든 아내든 배우자 관계에서는 상대가 부부관계에 있기 때문에, 친구에 대해서는 친구관계이기 때문에, 무조건 믿는다는 결론이다. 개인을 신뢰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개별적인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자기와의 관계망 속에서 연결된 관계 자체에 대한 절대적 신뢰가 있었다.

이러한 특별한 관계에 대한 무조건 신뢰의 경향은 보호관찰 청소년의 부모를 대상으로 분석한 연구 결과(박영신, 김의철, 탁수연, 2004)를 통해서도 확실히 나타났다. 자녀가 범법행위를 하여 법적인 제재조치인 보호관찰을 받는 상황에 있는데도 부모는 내 자식이기 때문에 무조건 믿는다는 반응을 한 경우가 과반수 이상이었다. 특별히 청소년 자녀가 초범도 아니고 재범이상의 사건에 연루되어 보호관찰을 받고 있는데도, 그들 부모의 59.4%가 내 자식이니까 자녀를 신뢰한다는 반응을 하였다. 객관적으로 평가하면 그 청소년의 태도나 행동이 결코 신뢰하기 어려운

상황인데도, 부모와 자녀라는 혈연으로 맺어진 특별한 인간관계이기 때문에 무조건 신뢰한다는 태도를 나타내었다.

기업의 상사와 부하의 신뢰에 대한 사례분석에 대한 논의(김명언, 이영석, 2000)도 이 연구의 결과와 일치하였다. 즉 한국 사람의 신뢰 기반이 개인적인 특성보다는 신뢰자와 신뢰대상자의 관계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는 사실이다. 이와 같이 합리적인 판단에 근거하기 보다는 관계에 토대한 신뢰의 형성은, 한국 사회가 관계주의 문화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김의철(2000)은 한국을 포함하는 동아시아가 관계주의 문화임을 지적한 바 있다. 즉 동아시아에서는 관계와 정서(예: 孝, 情)가 오히려 안정적인 것으로 여겨지고 개인주의와 합리성이 불안정한 것으로 간주된다는 것이다. 즉 관계와 정서가 중심이 되는 역할을 하고, 개인주의와 합리성은 존재하지만 상대적으로 부수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강조되는 정서는 개인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정서가 아니라, 개인들을 서로 묶어주는 관계적 정서들이다(김의철, 2000)고 할 수 있다.

둘째로, 한국 사람들이 신뢰 관계를 형성해 나감에 있어서 정서적인 유대관계가 매우 중요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이성과 합리에 기초한 신뢰라기 보다는 정서교류적인 지원이 신뢰의 기반으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컨대 자녀들이 아버지나 어머니를 신뢰하는 이유로서 편안하고 따뜻하여 '의지가 됨'이라든가, 나를 이해하고 '나를 믿어줌'이라는 반응들을 통해, 부모로부터의 정서적인 지원이 부모에 대한 신뢰를 형성하는데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학생이 교사를 신뢰하는 이유도 '아껴주고 관심있음'이 부각되었는데, 그것은 나에게 대한 이해와 관심이라든가 따뜻하고 편안함 및 도움을 줌 그리고 나를 믿어 줌과 같은 반응

들을 포함하는 것이었다. 학부모의 입장에서 자기의 자녀를 맡기고 있는 교사를 신뢰하는 이유로서, '학생에 대한 이해와 사랑이 두 번째로 많이 지적되었다는 사실은, 부모들도 교사의 정서적 지원을 신뢰의 중요한 이유로 생각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즉 교사가 학생을 사랑하고 학생을 이해하며 관심을 가지는 정서적인 지원을 해 줄 때, 학부모 입장에서 교사를 신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부모자녀관계나 교사학생관계와 같은 종적인 인간관계에서만이 아니라 횡적인 친구관계에서도, 정서적인 교류는 신뢰의 기반이 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같은 또래로서의 공감이라든가 나를 믿어주고 '나를 이해함'이라는 반응을 통해, 정서적인 공감대 형성을 하고 친구로부터 이해받을 수 있다는 생각이 친구에 대한 신뢰 형성에서 중요하게 작용함을 알 수 있다. 성인의 경우에 배우자를 신뢰하는 이유 중에 '대화와 상호 배려'가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볼 때, 서로에 대한 배려와 정서적인 지원이 중요함을 알 수 있다.

물론 정서적 지원이 자기효능감(Bandura, 1997)이나 신체적이고 심리적인 건강(House, Landis & Umberson, 1988)에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은 다양한 연구들에서 밝혀져 왔고, 반드시 한국 사람들만이 갖고 있는 고유한 심리적인 특성은 아니다. 그러나 한국 사람들을 대상으로 분석한 연구에서 정서적 지원의 영향은 매우 강력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서적 지원이 생활만족도(박영신, 김의철, 민병기, 2002) 스트레스(박영신, 권혁호, 김의철, 2003) 성취동기(박영신, 김의철, 2003)와 학업성취(정갑순, 박영신, 김의철, 2002)에만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의 신뢰의식 형성에서도 핵심적으로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질적 분석 결과(Lee, Park & Kim, 2004)를 통해 확인된 바 있다. 그리고 한국기업조직에서 부하

들이 상사에 대해 갖는 신뢰기반 중에, 상사의 부하에 대한 심정적 배려(약 60%)가 압도적인 비율을 차지한다(김명언, 이영석, 2000)는 점에서, 이 연구의 결과와 같은 경향을 보였다. 김명언과 이영석은(2000)은 이러한 결과가 최상진(2000)의 심정교환론을 지지해 주는 결과로 보았다. 즉 윗사람이 배려적 심정을 제공하고, 아랫사람이 이에 대해 신뢰 심정을 교환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논의들은 이 연구에서 다양한 인간관계에서 정서교류적인 지원이 있을 때 신뢰가 형성된다는 결과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셋째,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신뢰하게 되는 이유로서, 윗사람의 '희생과 헌신'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로부터 부모자녀관계에서 자녀가 부모를 신뢰하는 가장 기본적인 이유로서 '희생'의 중요성이 확인되었다. 즉 자녀가 아버지뿐만 아니라 어머니를 신뢰하는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부모님의 가족을 위한 희생과 고생에 대한 인식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니까 부모가 갖고 있는 개별적인 장점이나 특성 때문에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을 희생하면서까지 가족관계에서 부모의 역할을 다하는 모습을 보며 신뢰를 형성한다는 사실은 매우 흥미롭다. 위의 첫째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기본적으로 개인에 초점을 둔 특성이 아니라 집단 속의 관계 내에서의 역할과 관련된 윤리가, 신뢰의 이유로 부각되고 있는 셈이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 문화가 집단주의 관계문화임을 밝힌 선행연구의 결과들(Hofstede, 1991; Kim, 2003)을 뒷받침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박영신, 김의철과 한기혜(2003)의 연구에서 초, 중,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아버지가 고마운 이유를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가족을 위한 고생'(40.9%) '아버지의 희생'(26.1%) '정서적 지원'(19.7%) '지도해 주심'(5.9%) '부모님이므로'

(5.7%)의 응답들로 구성되었다. 또한 어머니가 고마운 이유도 이와 거의 마찬가지로 '어머니의 희생'(50.3%) '가족을 위한 고생'(21.6%) '정서적 지원'(16.9%) '부모님이므로'(8.1%) '지도해 주심'(2.6%)이었다. 아버지를 존경하는 이유를 분석한 결과는, '아버지의 희생'(34.7%) '성실함'(31.2%) '혈연관계'(11.9%) '인자함'(10.0%) '높은 교육열과 지도'(4.8%) '존경하지 않음'(4.4%)으로 나타났다. 또한 어머니를 존경하는 이유도, '어머니의 희생'(38.9%) '성실함'(27.3%) '혈연관계' (12.6%) '인자함'(10.7%) '높은 교육열과 지도'(7.3%)라는 반응들이 주를 이루었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한국의 아동과 청소년들이 부모에 대해 강한 고마움과 존경심을 갖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부모의 희생과 고생인 것으로 밝혀졌다. 박영신, 김의철과 한기혜(2003)의 연구 결과는 이 연구에서 부모를 신뢰하는 가장 대표적인 이유로 부모의 희생이 지적된 것과 일치되는 맥락에 있다. 그러므로 부모가 먼저 희생적인 태도로 자녀를 대할 때, 자녀들은 부모에 대해 고마움과 존경하는 마음뿐만 아니라 부모를 믿고 의지하는 신뢰가 형성된다고 할 수 있다.

넷째, 한국 사람들은 어떠한 관계에서든 사람에 대한 신뢰가 능력차원보다는 도덕성차원에 초점을 두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청소년이 부모나 친구나 교사에 대해, 그리고 부모가 자녀나 배우자나 교사에 대해 개인적인 능력에 기반을 두고 신뢰하기보다, 그 사람의 성실성이나 정직함과 같은 도덕성을 현저하게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예를 들어 배우자를 신뢰하는 이유를 질문하였을 때, 평소 생활태도가 성실하고 책임감 있다는 '성실함'이 가장 높은 반응율을 나타내었으며, 그 다음으로 정직하고 믿음직하며 올바르게 약속을 지킨다는 의미들을 포함하고 있는 '정직함'이 세 번째로 많이 지적되었다. 이

를 합하면 40% 이상으로서, 성인의 거의 과반수에 가까운 비율이 성실 정직을 배우자 신뢰의 이유로 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더욱이 부모가 자녀를 신뢰하는 가장 대표적인 이유로 '성실함'과 '정직함'이었는데, 이 두 반응을 합하면 60% 이상으로서 10명 중에서 6명의 부모가 자녀의 성실 정직을 신뢰의 이유로 지적하였다. 학부모로서 어머니집단이 교사를 신뢰하는 세 번째 대표적인 이유로도 '성실함'이 포함되었다. 여기에서의 성실함도 믿음직함 훌륭함 모범이 됨과 같은 반응들로 구성되었다.

또한 자녀들이 아버지나 어머니를 신뢰하는 이유로 '존경함'에는, 모범이 되고 정직하며 약속을 지키고 올바르게 성실하다는 의미들이 포함되었다. 또한 학생들이 선생님을 신뢰하는 이유로 '존경함' 속에는, 믿음을 줌 인생선배 현명함 성실한 행동과 같은 의미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렇게 부모나 교사를 신뢰할 수 있는 이유로 존경함의 의미를 분석해 보면 성실 정직하기 때문에 존경할 수 있다는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사람을 신뢰하는 핵심적인 이유로 성실함과 정직함 및 존경함은 능력과 관련된 내용이 아니고 도덕성에 초점을 둔 사회적 표상이었다. 능력보다 도덕성을 강조하는 한국 사람들의 의식구조는, 유교문화와도 밀접히 관련되는 것으로 보인다. 유교문화에서의 이상적인 인간상으로서 군자는 단순히 학업적인 성취만을 이룬 사람이 아니라 동시적으로 인격적인 덕(德)을 쌓은 사람이다. 그러므로 자기 직업분야에서의 전문성만이 아니라, 지적인 측면이 인품으로서의 덕(德)과 통합되고 겸비되는 것이 중요하다. 공자는 군자로서 갖추어야 할 근본적인 덕을 인(仁)이라고 하였다.

능력차원보다 도덕성 차원을 강조하는 시각은,

결과중심적인 사고보다는 과정중심적인 사고를 하는 것과도 관련이 되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 사람의 성취의식에 대한 일련의 분석(박영신, 김의철, 탁수연, 2002; Kim & Park, 2003) 결과들은, 성공을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능력이 아니고, 자기조절로 대표되는 노력이나 인내 의지 등임을 밝힌 바 있다. 이는 성실함이 신뢰의 중요한 이유로 부각되고 있는 이 연구의 결과와도 관련된다.

사실상 유교철학에서의 인간관계 및 가족관계는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로 정보사회로 변화함에 따라 점차 약화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대가족제도가 붕괴되고 핵가족화되었으며, 가족중심의 사회가 계약관계적인 이익사회로 변화하여 개인주의가 팽배하였고, 상하복종관계의 사회로부터 자유와 평등의 사회로 변화하였으며, 물질만능주의와 업적주의가 지배하면서 바빠진 사회생활에서 농경사회에서 행해졌던 유교윤리는 번거로운 것(정진일, 1997)으로 인식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한국 사람들의 가치의식 속에는 유교전통에 뿌리를 둔 내용들이 상당수 남아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별히 신뢰의 이유로서 성실함과 정직함에 대한 강조는, 유교적인 전통에 근거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유교에서는 인간의 본성 속에 하늘이 부여해 준 맑고 순수한 본성을 타고났지만 육신의 기질로 말미암아 통제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악을 저지르는 존재로 보았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을 수양하는 수기(修己)으로써 악을 억제하고 본성으로서 천명을 따름으로써 군자가 될 수 있다고 보았다. 공자는 군자가 되는 것을 수기의 목표로 보았으며, 자사는 중용에서 수기함에는 성실함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증자는 수기(修己)의 문제를 '대학'에서 최초로 체계적으로 다루었다. 사람은 본래 하늘로부터 밝은 덕(明德)을 가지고 태어났으나 습성이나

욕망 등으로 흐려졌는데, 밝은 덕을 밝히기 위해 즉 수신하려면 사물의 이치를 탐구하여(격물 格物), 그 이치를 알고(치지 致知), 뜻을 정성스럽게 하며(성의 誠意), 마음을 바르게 해야(정심 正心) 해야 함을 제시한다. "사물의 이치를 깨달은 후에 지식이 지극해 지고, 지식이 지극해진 뒤에 뜻이 성실해지고, 뜻이 성실해진 뒤에 마음이 바루어지고, 마음이 바루어진 뒤에 몸이 닦아지고, 이러한 수신을 하고 나서야 가정을 바로 잡고, 나라를 다스릴 수 있고 천하를 평화롭게 할 수 있다"(대학 1장; 성백효, 1998) 그러므로 유교철학에서는 가정윤리가 바로서고 점차 사회윤리로 확대되어가야 하는 것으로 전제하고 있고, 수기(修己)를 함에 있어서 성(誠)실함이 중요함을 알 수 있다.

결국 유교의 수기론(修己論)은 인간의 기질에서 생겨난 욕망을 어떻게 억제하고 조절할 것인가에 관심을 집중하여 왔다. 즉 욕망을 억제하고 조절함으로써 나와 남이 함께 어우러져 조화롭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자기를 조절하여 지나침도 미치지 못함도 없는 알맞음(中)을 실천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수기(修己)의 최대 과제가 되어 왔다. 대체로 서양철학에서는 자연과 인간, 정신과 육체를 대립적인 것으로 보는 이원론적인 사고가 기초가 되어 자연을 인간의 욕망을 충족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로 또는 정복의 대상으로 삼고, 다른 민족이나 다른 사람을 경쟁의 상대로 간주하였다. 반면에 동양철학에서는 자연과 인간 그리고 육체와 정신을 하나로 보았다. 예컨대 도가는 자연과 인간의 조화로운 삶을 특히 강조하였다. 또한 유교에서는 욕망을 억제하고 조절하여 사회 속에서 여러 사람과 어울려

7) 物格而后知至 知至而后意誠 意誠而后心正 心正而后身修 身修而后家齊 家齊而后國治 國治而后天下平

살아가면서 자기를 실현하는 현실적인 수기론(修己論)을 제시하였다(정진일, 1997). 이와 같이 자기를 끊임없이 수양해 나가는 인간이 도덕적이고, 그러한 성실함이 신뢰와 연결되는 것으로 보인다.

다섯째, 급격한 사회 변화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람들의 가족과 관련된 기본적인 가치는 전통적인 의식과 큰 차이가 없다고 할 수 있다. 주위의 의미있는 사람들에 대한 신뢰의 정도를 비교해 보았을 때, 배우자 신뢰 및 부모자녀간 신뢰가 매우 높음을 알 수 있다. 최근 한국 사회에서는 이혼율의 증가 등으로 인해 붕괴되는 가정이 많고 다양한 유형의 가족형태가 대두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들간의 신뢰 수준은 다른 어떠한 인간관계에서보다 평균적으로 높게 유지되고 있었다.

양적 분석자료 중에서 흥미로운 결과는, 자녀의 아버지에 대한 신뢰가 어머니의 아버지에 대한 신뢰의 정도와 정적인 상관을 보이는 점이다. 즉 가정에서 어머니가 아버지를 존중하고 신뢰하는 정도가 높을 때, 자녀들이 아버지를 신뢰하는 정도가 높았다. 그리고 이 값은 아버지가 자녀를 직접적으로 신뢰하는 정도와 자녀가 아버지를 신뢰하는 정도의 상관관계수보다 더 높았다. 이러한 사실은 가정에서 어머니가 아버지를 어떻게 지각하고 있느냐가, 자녀의 아버지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는 자녀들의 아버지에 대한 신뢰가 아버지 자체에 대한 것보다 어머니의 평가로부터 크게 영향을 받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시사한다. Kim과 Park(2000)은 한국 사회가 전통적인 대가족 형태에서 이제 거의 핵가족화가 되면서, 가정에서 아버지의 위치와 역할이 점차 약화되고 어머니가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이 커지고 있음을 지적한 바 있다. 이 연구에서 나타난 결과는 한국 사회

에서 점차 증대되고 있는 가정에서 어머니의 영향력을 간접적으로 시사하는 결과라고도 볼 수 있을 것이다.

한국사회가 최근 불과 40여년 사이에 농경사회에서 공업화사회를 거쳐 현재 정보화사회로의 급속한 변화를 겪으며, 세대차이, 교육문제, 경제위기, 정치안정, 민족통일 등 여러 가지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 동시에 인터넷이나 핸드폰 사용의 급속한 확산, 물질적 풍요와 삶의 질 향상, 그리고 생활양식의 면에서도 짧은 기간 안에 급격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에서 한국 사람들의 신뢰의식의 심층을 살펴본 결과는, 인간관계 중심의 사고와 가치, 정서적 이해와 공감을 중시하는 정서지향성, 능력보다는 도덕성을 중시하는 기본적인 가치가 과거와 큰 변화없이 지속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여섯째, 신뢰형성과정에서 가족관계의 확대현상을 추론해 볼 수 있다. 위의 셋째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부모자녀관계에서 위사람으로서의 부모가 아랫사람인 자녀를 위해 자신을 희생함으로써 아랫사람의 마음을 움직여 신뢰의식을 구축하게 되는 심리적인 기제는, 부모자녀관계 외의 다른 인간관계로도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희생과 헌신을 통해 신뢰를 구축하게 되는 토착적인 부모자녀관계가, 관계주의 사고의 심리적인 원형으로 작용하여 교사학생관계나 배우자 관계 등에서도 작용하는 가능성이 시사된다. 예컨대 교사학생관계에서 청소년들이 교사를 신뢰하는 이유로서 '학생을 위한 고생과 희생' '부모와 같은 존재'라는 반응들을 통해 이러한 가능성이 확인된다. 뿐만 아니라 배우자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가족을 위한 헌신'이 배우자에 대한 신뢰의 핵심적인 이유로 작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즉 배우자가 개인으로서

갖고 있는 특성보다, 가족을 위해 고생하고 헌신적으로 기여하는 관계적 역할에 대한 충실한 수행이 신뢰의 기본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유교에서는 가족윤리가 사회윤리의 기초가 되어야 하는 것으로 본다. “군자는 근본을 힘쓰니 근본이 확립되면 도가 발생하는 것이다. 효와 제라는 것은 인을 행하는 근본이다.”(논어집주 學而 제 1, 2)⁸⁾는 구절이 있다. 즉 인은 사랑을 주장하고, 사랑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큰 것이 없기 때문에, 효가 인을 행하는 근본인 것으로 설명된다. 이와 같이 논어의 학이(學而) 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이 인을 실천하는 기본이 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인(仁)의 근본인 부모를 섬기는 도리로서 효(孝)와 형제에 대한 도리로서 제(悌)의 두 가지 덕목이 가족윤리이며, 가족윤리는 사회윤리의 기초가 된다.

가족윤리가 사회윤리로 어떻게 확대되어 가는가에 대한 공자의 입장은 다음과 같은 구절에서 확인된다. “공자가 말씀하시기를 군자가 부모를 섬김이 효성스러우므로 충성을 임금에게 옮길 수 있고, 형을 섬김이 공경함으로 순함을 장관에게 옮길 수 있고, 집에서 거처함이 잘 다스려지므로 다스림을 관청에 옮길 수 있다. 그러므로 행실이 집안에서 이루어지고, 이름이 후세에 세워지는 것이다” (小學集註 2권 明倫 제 2장, 100)⁹⁾. 이러한 지적을 통해 가장 가까운 인간관계인 부모에 대한 효도와 형제에 대한 우애를 확대함으로써 사회적 인을 실천할 수 있음을 지적한다.

유교에서는 부모에게 효도하고(孝) 자식에게

자애로우며(慈) 형제간에 우애있는(悌) 가족관계에서의 도덕규범이, 일반적인 윤리규범의 기초가 되는 것으로 이해된다. 즉 효(孝) 자(慈) 제(悌)가 곧 윗사람과의 관계, 아랫사람과의 관계 및 이웃과의 수평적인 관계에서의 규범으로 이해됨으로써, 인간관계의 기본형식을 가족관계의 질서 속에서 찾을 수 있다.

여기에서 우리는 동양의 전통적 가정이 가족주의나 혈족주의에 폐쇄되지 않고, 개인의 수양에 기초하는 개체성에 뿌리를 두면서도 사회적 세계적 질서로 성장 확대되어 가는 것(김장태, 1996)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유교의 혈연중심적 가족의식을 폐쇄적인 것으로만 간주하는 것은 오해이다. 자기 자신의 수양으로 그치지 않고 남을 편안하게 해 주는 수기안인(修己安人)의 과제로 확대되어 간다. 이러한 수기안인의 정신은 인간관계에서 지켜야 할 질서의식인 사회윤리인 혈구지도(絜矩之道) 및 오륜(五倫)에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이러한 동아시아의 유교적 정신유산이 현실에서 긍정적으로만 실천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문제가 있다. 예컨대 가족주의가 세계평화를 위해 기여하는 방향으로 확대 발전되는 것이 아니라, 폐쇄적 연고주의에 머무는 현실이나 현상이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아시아적 가치나 정신이 편파적으로 평가되고 폄하되기도 한다.

지구촌 시대로 불리는 세계는 이제 다양한 민족과 다양한 문화간의 충돌을 최소화하면서 공존하고 상생(相生)하는 태도를 학습하는 것이 급박하게 요구되는 시점에 와 있다. 하나의 강대국이 주도하는 강제적인 물리력은 이제 한계를 보이고 있다. 과학 물질문명의 발전으로 세계 내에서의 교류가 편리해지고 손쉽게 이루어지면서, 다양한 문화가 어떻게 각자의 독특성을 존중하면서 함께 조화를 이루며 어울려 사는가 하는

8) 君子務本 本立而道生 孝弟也者 其爲仁之本與

9) 孔子曰 君子之事親孝 故 忠可移於君 事兄弟 故 順可移於長 居可理 故 治可移於官 是以 行成於內而名立於後世矣

문제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개인간 뿐만 아니라 사회와 국가간에 그리고 이질적인 문화간에 상호 신뢰를 형성하는 일이, 그 어느 때보다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우선 한국 사람의 신뢰에 대한 토착심리를 규명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요구되며, 앞으로 이러한 신뢰의식의 문화차이에 대해서도 확대 연구해 나갈 필요가 있다. 한국인의 인간관계를 통해 본 신뢰의식을 다룬 이 연구도 물론 모든 인간관계를 다루지는 못하였다. 청소년과 그들의 부모를 중심으로 각각 의미있는 세 가지의 인간관계만을 다루었기 때문에, 직장에서의 상사 부하관계 동료관계 등 이 연구에서 다루지 않은 다양한 한국인 인간관계에서의 신뢰에 관해 연구를 확대하고, 이 연구에서 기초적으로 밝혀진 결과들을 확인해 나가야 할 것이다. 변화하는 미래사회에서 한국인의 전통적이고 토착적인 가치의식의 긍정적인 면들은 계속 유지해 나가면서, 동시에 시대변화에 맞추어 적절한 창조적 변화를 해나가는 것은 한국인의 정신문화 발전을 위한 중요한 과업으로 남는다.

참고문헌

- 김장태. (1996). 유학사상과 유교문화. 서울: 전통문화연구회.
- 김명언, 이영석. (2000). 한국 기업조직에서 부하가 상사에 대해 갖는 신뢰와 불신의 기반.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6(3), 99~120.
- 김묘성, 김의철, 박영신. (2002). 한국 정치지도자의 문제점과 자질에 대한 청소년의 표상: 토착심리학적 접근. 한국심리학회 2002년도 연차학술발표대회 논문집, 327~333.
- 김용욱. (2001). 도를 논어(2). 서울: 통나무.
- 김의철. (2000). 토착심리학과 문화심리학의 과학적 토대.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6(3), 특집호, 1~24.
- 김의철, 박영신. (2003). Management, organizational effectiveness and culture: Indigenous psychological analysis of the role of trust and leadership. 한국기업경영학회 2003년도 기업경영대상 시상식 및 하계정기 학술대회 자료집, 1~63, 2003년 6월 21일, 한국프레스센터 매화홀.
- 김의철, 박영신, 이상미 역. (2001). 신뢰의 구조: 동서양의 비교. 문화심리학 총서 4. 서울: 교육과학사. 山岸俊男(1998). 信賴の構造: ころと社會の進化ゲーム. 東京: 東京大學出版會.
- 두산 동아. (2000). 동아 새국어사전, 제 4판. 서울: 두산 동아.
- 박영신, 권혁호, 김의철. (2003). 청소년의 스트레스에 관한 종단적 연구: 사회적 지원과 자기효능감을 중심으로. 인하대 교육연구소, 인하교육연구, 9호, 79~107.
- 박영신, 김의철. (2003). 한국 청소년의 성취동기 및 학업성취에 대한 부모자녀관계의 영향: 토착심리학적 접근. 한국청소년학회, 청소년학 연구, 10(1), 139~165.
- 박영신, 김의철. (2004). 한국의 청소년 문화와 부모자녀관계: 토착심리 탐구. 문화심리학 총서 6. 서울: 교육과학사.
- 박영신, 김의철, 민병기. (2002). 부모의 사회적 지원, 청소년의 자기효능감과 생활만족도: 변화에 대한 종단자료 분석과 생활만족도 형성에 대한 구조적 관계 분석. 한국교육심리학회, 교육심리연구, 16(2), 63~92.
- 박영신, 김의철, 탁수연. (2002). IMF시대 이후 한국 학생과 성인의 성공에 대한 의식: 토착심리학적 분석.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 8(1), 103~139.
- 박영신, 김의철, 탁수연. (2004). 한국 일탈 청소년의 토착심리 탐구: 보호관찰 청소년과 일반 청소년의 부모자녀관계에 대한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10(1), 107~145.
- 박영신, 김의철, 한기혜. (2003). 아동과 청소년의 부모에 대한 지각: 토착심리학적 접근.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9(2), 127~164.
- 방희정. (2000). 한국 사회에서의 부모자녀관계 특성에 대한 발달심리학적 탐색.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6(3), 특집호, 41~65.
- 성백효. (1998). *대학 중용* 집주. 서울: 전통문화연구회.
- 윤영진, 김의철, 박영신. (2002). 한국 사회의 문제와 발전 전망에 대한 표상: 토착심리학적 접근. *한국심리학회 2002년도 연차학술 발표대회 논문집*, 334~339.
- 정갑순, 박영신, 김의철. (2002). 학업성취과정에 대한 분석: 부모자녀관계, 학업성취효능감, 과거성취도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 2002년도 연차학술발표대회 논문집*, 315~321. 2002년 10월 19일. 영남대학교 생활과학대학.
- 정진일. (1997). *유교의 이해*. 서울: 형설출판사.
- 조금호. (2003). *한국인 이해의 개념들*. 서울: 나눔출판.
- 최상진. (2000). *한국인 심리학*. 중앙대학교 출판부.
- 최상진, 김의철, 김기범. (2003). 한국 사회에서의 대인관계 속의 신뢰와 불신의 기반으로서의 마음에 대한 문화심리학적 접근.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9(2), 1~18.
- Bandura, A. (1997). *Self-efficacy: The exercise of control*. New York: Freeman.
- Cameron, K. S., & Quinn, R. E. (1997). *Designing and changing organizational culture*. San Francisco: Jossey-Bass
- Coleman, J. S. (1990). *Foundations of social theory*.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 Fukuyama, F. (1995). *Trust: The social virtues and the creation of prosperity*. Glencoe, IL: The Free Press.
- Hardin, R. (1991). Trusting persons, trusting institutions. In R. J. Zeckhauser (ed.), *Strategy and choice* (pp. 185-209). Cambridge, MA: MIT Press.
- Hardin, R. (1992). The street-level epistemology of trust. *Politics and Society*, 21, 505~529.
- Hofstede, G. (1991). *Cultures and organizations: Software of the mind*. London: McGraw-Hill.
- House, J. S., Landis, K. R., & Umberson, D. (1988). Social relationships and health. *Science*, 241, 540~545.
- Kim, U. (1994). Individualism and collectivism: Conceptual clarification and elaboration. Kim, U., Triandis, H. C., Kagitcibasi, C., Choi, S. C., Yoon, G. (Eds.). *Individualism and collectivism: Theory, method, and applications*. Vol. 18. Cross-cultural research and methodology series. 19~40. London: Sage Publications.
- Kim, U. (1999). After the "crisis" in social psychology: The development of the transactional model of science. *Asian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2(1), 1~19.
- Kim, U. (2003). Science, religion, philosophy, and culture: Psychological analysis of western, islamic, and east asian worldviews. Kim, U., Aassen, S., & Ebadi, S. *Democracy, human rights, and islam in modern Iran: Psychological, social, and cultural perspectives*. Bergen:

- Fagbokforlaget.
- Kim, U., Helgesen, G., & Ahn, B. M. (2002). Democracy, trust, and political efficacy: Comparative analysis of Danish and Korean political culture. *Applied Psychology: An International Review*, 51(2), 317~35
- Kim, U., & Park, Y. S. (2000). Confucianism and family values: Their impact of educational achievement in Korea. Freie Universitat Berlin, Institut fur Allgemeine Padagogik. *Zeitschrift fur Erziehungs-wissenschaft*, 3(2), 229~249.
- Kim, U., & Park, Y. S. (2003). Chapter 9. An indigenous analysis of success attribution: Comparison of Korean students and adults. In K. S. Yang, K. K. Hwang, P. B. Pedersen, & I. Daibo (Eds.), *Progress in Asian social psychology: Conceptual and empirical contributions. vol. 3* pp. 171~195. Asian Association of Social Psychology. Westport, CT: Greenwood Publisher.
- Kim, U., Park, Y. S., & Park, D. H. (2000). The challenge of cross-cultural psychology: The role of the indigenous psychologies. *Journal of Cross-Cultural Psychology*, 31(1), 63~75.
- Lee, S. M., Park, Y. S., & Kim, U. (2004). Trust of parents, teachers and friends: An indigenous psychological analysis among Korean students. Paper presented at the 17th International Congress of 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Cross-Cultural Psychology. August 2-6. Shaanxi Normal University, Xi'an, China.
- Park, Y. S., Kim, U., & Lee, S. M. (2004). The basis and evolution of trust in relational cultures: Psychological, indigenous, and cultural analysis. Paper presented at the 28th International Congress of Psychology. August 8-13, Beijing International Convention Center, Beijing, China.
- Putnam, R. D. (1993a). *Making democracy work: Civic traditions in modern Italy*.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 Putnam, R. D. (1993b). The prosperous community: Social capital and public affairs. *The American Prospect*, Spring, 35~42.
- Yamagishi, T. (山岸俊男, 1998). 信賴の構造: ころと社會の進化ゲーム. 東京: 東京大學 出版會.

1 차원고접수일 : 2004. 4. 5
최종원고접수일 : 2004. 4. 30

The basis of trust in relationships: Indigenous psychological analysis of adolescents and their parents

Uichol Kim
Chung-Ang University
Dept. of Psychology

Young-Shin Park
Inha University
Dept. of Education

This study examines the basis of trust in relationships by adolescents and their parents using the indigenous psychological approach. Using the indigenous methodology, adolescents were asked the reasons why they trusted their mother, father, friends, and teachers. Parents were asked why they trusted their children, spouse and their children's teachers. A total of 1,737 participants completed an open-ended survey: 579 adolescents (274 middle school and 305 high school students) and their parents (579 fathers) and (579 mothers). The results indicate that adolescents trust their parents because of their sacrifice, followed by consanguinity (i.e., blood relationship), respect, their trust in me, dependability, and their advice and counseling. The reasons why adolescents trust their teachers is because of the academic guidance they provide, unconditional trust of teachers, their concern and care, respect for teachers, advice and counseling they provide, they are like parents, and because of their sacrifice for the students. The reasons for trusting their friends are as follows: Dependability, closeness, unconditional trust of friends, their understanding of me, and their emotional support. The reasons why parents trust their children are: Children's sincerity, honesty, consanguinity, parents' expectation and communication with the children, children's obedience, and since they are diligent in their schoolwork. The reasons for trusting one's spouse are reported to be sincerity, their sacrifice for the family, honesty, unconditional trust of a spouse, and because of mutual support. The reasons why parents trust their children's teachers are reported as follows: Unconditional trust of teachers, their sacrifice for the students, and their sincerity. There were no significant differences across the type of school and academic grades in terms of trust of parents. However, middle school students are more likely to trust their teachers, and high school students are more likely trust their friends. The male students rather than female students and those students with higher academic grades are more likely to trust their parents, friends, and teachers. For parents, there were no significant differences across age, sex, and educational status concerning the trust of their children, spouse, and children's teachers. There was a positive correlations between parents' trust of their spouse and children and their children's trust of their parents. There was also a positive correlations of mothers' trust of children's teachers and the children's trust of their teachers.

key words : Trust, indigenous psychology, relational culture, emotional support, morality, sacrifice, obedience, Confucian influence, extension of parent-child relationship